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이 더욱 밝아지고 고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진리에 바로 서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 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순절 보내기

사순절은 무덤이 비어 있고 죄와 죽음의 압제가 풀려났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봄이다. 슬퍼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봄이다. 이 금식의 시간은 하나님의 해방과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의 선포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절기다.

교회력은 단순한 과거 사건의 되살림이나 기억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 구세사적 사건들이 품고 있는 '은혜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력은 단 한 번 일어났던 구원의 위대한 업적이 되풀이해서 '현재가 되게 하는 예전이다'.



불확실한 상황... 믿음과 희망으로 서로 돕기

TGC, 릭 페르하이 목사가 전하는 우크라이나 현지상황/ 크리스천들의 수용자세 소개

"아내와 나를 여기 우크라이나에 머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작은 무리의 교인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남아 있다."

릭 페르하이 목사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신학교(Kyiv Theological Seminary) 석박사학위과정의 책임자이자 담임목회자(Lighthouse International Fellowship Church)다. 그는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는 키예프 현지에서 다가오는 전쟁의 암울한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해준다. 그는 등장하는 우크라이나 현지 신자들의 이름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가명으로 대체했다(The Ominous Threat Surrounding Missionaries in Ukraine).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여느 날처럼 잔뜩 흐리고 눈이 내리는 1월의 아침, 우리 아파트에서 키예프 신학교까지 1km를 걷고 있다.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식료품점에서 5리터짜리 물 여러 병과 여분의 통조림 제품을 사서 돌아오고 있다. 도시 분위기는 더 조용해졌다. 신학교 형제들이 우리 가족도 다른 외국인들처럼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게 모두 우크라이나의 북부, 동부, 남동부,

남사부 국경에 수천 대의 탱크와 대포로 무장한 채 금방이라도 침공할 태세로 주둔하고 있는 13만 러시아군 때문이다.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나라를 자기네 손아귀에 두려고 한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나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협과 분열이 이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외교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영렬 목사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인터뷰 Dr. Freddy Cardoza



부르시는 그분의 초대인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을 말끔히 치우고 그분만을 위한 자리와 시간을 더 많이 마련하도록 결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순절은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다. 힘들지만 교회는 우리 영혼에 말을 걸어오는 방안이나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인들은 무심코 가졌던 잘못된 생각, 버릇처럼 대는 핑계, 소홀히 여기며 지나친 부분 등 자신이 지금껏 한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게 함과 동시에 앞으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바를 굳게 다짐하게

구비시켜야 한다. 즉 매일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드리기, 금식하기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실천 외에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이웃의 혼자 사는 노인 도와주기 등 일상에서 작은 희생이나 선행을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실천하는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타인보다 자신만을 생각했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순 시기 동안 실천한 일들이 모여 마침내 부활절에 예수님께 작은 기쁨을 선물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금식과 기도와 자선은 사순절 기간 동안 생활정

신의 요약이다. 금식은 자신에 대한 절제와 극기의 상징이고, 기도는 내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다. 자신은 금식과 기도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것이 불안정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으며 그에 비춰 자신을 반성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나의 계획과 집착을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 낯은 생활방식을 못 보는 절기가 돼야 한다.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kjccbooks.com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명준모 위장간 내과
Joon Mo Myung, MD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2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교회학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주해: 신명기 6 : 1 - 9
(2) 신약주해: 고린도후서 5 : 11 - 21
(3) 논문제목: 현대교회 개혁신학의 예배를 중심으로 한 목회전략
(4) 설교본문: 구약 - 시편 95 : 1 - 8, 신약 - 로마서 12 : 1 - 2 (중 택일)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2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6회 총회기간(5월10일 - 13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2년 5월9일(월)-10(화)
장소: 다인교회(부흥회장 홍귀표 목사 시무)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2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경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교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교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Pay to the order : WGPC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9-10일)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음.
(3)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주소: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전화: 703-725-6468 / 이메일 663927@gmail.com

기타문의
a) 고시부 부장: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cpastor@gmail.com
b)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오세훈 목사
서기: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송일용 목사
고시부서기: 손기성 목사

발행인 칼럼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미 수년 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요충지인 흑해 연안 크림반도 지역을 점령했다. 필자는 바로 그 점령 직전에 크림반도 알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정리하려고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가 모여 회담을 벌였던 곳이다. 그곳을 둘러보면서 인류 역사상 멈춤이 없었던 전쟁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각종 미사여구로 수놓은 전쟁의 명분 뒤에는 언제나 영토에 대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새삼 생각해본 것이다. 나라만이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은 벌이는 것이 아니다. 개인들도 싸운다. 세계 어느 곳이나 공간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집값이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나고 있다. 주어진 공간은 제한되어있고 그것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은 넘치니 차고받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전쟁과 다툼을 불사한다. 공간 차지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나라마다 군비확충을 위한 낭비는 없을 것이요, 작은 공간이라도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이웃끼리의 왜 싸우겠는가. 사실 사람들에게 공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시간이다. 공간은 모든 사람에게 상대적이다. 그러나 시간은 그렇지 않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루 24시간씩 똑같이 주어진다.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시간이나 남의 시간을 빼앗을 필요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가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마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좋으리라. 기록경기에 나선 이들에게 0.1초는 너무나 크고 소중한 시간이었으리라. 아슬아슬하게 응급실에 도착하여 살아남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주 짧은 시간이 어떤 큰 공간의 소유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를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로 만난다면 똑같은 시간에서의 가치 창출(創出)은 사람마다 현격히 다를 것이다.

사람에게 공간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영원이다. 화려한 공간과 다양한 시간 속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본 솔로몬이 왜 그 끝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자조(自嘲)했겠는가. 그는 모든 경우의 시간을 다 열거한 뒤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논하였다. 인생은 그 마음에 영원이라는 것이 영원히 심어진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면서 일생을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공간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가능자가 아니다. 이 땅의 시간에서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시금석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유일하고 진정한 기준은 영원에 있다. 하늘이 기준이다.

하늘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짧은 생을 멋지게 산 사람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청년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살았다. 이 땅에서 공간을 넘어서고 시간을 넘어서 삶을 죽는 날까지 살다가 그토록 그리던 하늘로 갔다.

흑인기독교인들, 기독교에 대한 흑색 거짓말에 직면

CT, 도시변증학자들의 '흑인의식' 운동이 조장하는 왜곡된 주장 소개(하)

에릭 마슨(Eric Mason) 박사는 에피파니 펠로우십교회 설립자이자 담임목사로 도시 사역 조직(Thriving)을 통해 흑인 지역사회에서 피해의식으로 병든 흑인들을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있다.

현재 '비판적 의식'이론이 미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마슨 목사는 그 병폐로 '흑인의식' 운동으로 인한 심각한 기독교 왜곡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흑인 크리스천들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진정한 제자로 나아갈지를 도시변증학적 입장에서 명쾌하게 말해준다(Black Christians Are Confronting Black Lies About Christianity: How urban apologetics contends against the distortions promoted by "Black Conscious" movements).

운동으로 인한 심각한 기독교 왜곡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흑인 크리스천들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진정한 제자로 나아갈지를 도시변증학적 입장에서 명쾌하게 말해준다(Black Christians Are Confronting Black Lies About Christianity: How urban apologetics contends against the distortions promoted by "Black Conscious" movements).

도시변증학에 대해 말할 때 특히 흑인 반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것과 기독교가 흑인들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에 대한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변증학은 지난 호에 열거된 몇 가지 접근방법을 합쳐서 사용한다.

먼저 믿음에 근거한 주장보다 과학적 설명을 중시하는 흑인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고전적 변증법적 접근을 사용한다. 실증적 변증법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무덤은 어디에 있나?” 또는 “기독교는 유럽에서 시작됐다”와 같은 질문에 대응할 때 특히 유용하다.

우리가 도시변증학에서 접

심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회복이다. 인종적 불의와 불평등은 죄 많은 인간의 자긍심에 도전하면서 인류를 긍정해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 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대할 것을 요구한다(창1:26-27, 약3:9).

도시변증학은 또한 거짓말

버린다. 우리가 도시변증학에서 싸우는 것의 대부분은 이전 세대에서 유행했던 논쟁들이며 현재 인종적 편향성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 케메티즘(Kemeticism)이라는 고대 이집트 종교의 사본이라는 이론이 재등장했는데, 이 이론은 수십 년 전에 이미 폐기

“현대의 지적인 역사가들은 아프리카가 무엇을 배웠든 그것은 유럽에서 배운 것이라는 간단한 전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신플라톤주의의 경우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했다는 사실(이집트 바로 남쪽에 있는 나일강을 따라 있는 흑인 아프리카 왕국)과 성서 세계에서 구스인이 수행한 역할에 관한 역사 연구에서 필자는 여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우리가 세속 및 기독교 학문에서 목격하는 인종주의의 기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구스(이집트 바로 남쪽에 있는 나일강을 따라 있는 흑인 아프리카 왕국)와 성서 세계에서 구스인이 수행한 역할에 관한 역사 연구에서 필자는 여

도시변증학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인종적 편향성으로 재 부각 변증은 논쟁에서 이기기보다 듣는 자의 영혼을 위해 싸우는 것

하는 대부분의 진술이나 질문의 지저에는 다양한 수정주의적 내러티브가 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많은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불의에 대해 겪는 경험을 호소하고 확증한다. 그것들을 논박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적 변증학과 경험적 변증학의 요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도시변증학에서 우리의 임무는 겸손과 보살핌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도시변증학은 소수집단의 지적, 정서적, 인종적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흑인들에게 기독교를 옹호함으로써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 이는 흑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갖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영적, 신학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시변증학의 핵

이 팽배한 이 세상에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 우리는 BRICs(흑인 종교 정체성 종파, Black Religious Identity Cults)가 조장하는 불법적인 진실의 세계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과 오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을 믿는다. 흑인에게 호소하는 대부분의 이데올로기나 종파는 유대-기독교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와 이른바 진리의 틀을(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 비추어 접근한다.

도시변증학은 기독교만이 세계관으로서 합리적이고 진리를 증명하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도시변증학은 또한 흑인공동체에 존재하는 수많은 도시전설, 역사적 신화, 신학적 오류, 과학적 잘못된 명칭, 기독교에 대한 환원주의적 견해를

된 이론이다.

흑인 커뮤니티는 백인과 유럽인의 사상을 깊이 불신하기 때문에 많은 흑인들은 백인들의 부패 암시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기독교는 쉬운 표적이 된다. BRICs가 기독교가 백인 유럽인에 의해 설립된 백인 종교라고 제안할 때 많은 흑인은 그것을 믿었다. 그러나 실제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아프리카로, 이후 유럽으로 전파됐다. 로마에 기독교 본부(천주교)가 자리잡기 훨씬 이전에 기독교의 본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믿으려는 사람들의 의지는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신학자 Thomas C. Oden은 2010년 저서인 '어떻게 아프리카는 기독교적 정신을 형성했는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전히 백인 학자들이 주도하는 학문 내에 남아 있는 인종적 편견을 접할 수 있었다.

인종적 편견이란 말을 쓸 때 특히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역사, 종교학에서 비교적 흔했던 노골적인 인종적 편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종종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주하는 현실 즉 무의식적이거나 미묘한 인종 편견이다. 이러한 인종적 편견은 기독교 역사 학문을 포함해 사회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으며, 다른 흑인들과 복음을 전하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노력에 큰 도전이 됐다. 잠재의식과 많은 사람이 연류돼 있는 인종차별이 흑인 커뮤니티를 황폐화시켰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비블리칼 프레스라는 단체에서 보통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염려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

었고, 30%는 변하지 않을 과거에 대한 것들이었고, 12%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한 것들이었고, 10%는 건강에 대한 것으로서 염려하므로 더욱 건강을 악화

시키는 것이었고, 8%는 직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에 대해 염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실제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8%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재조정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를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정죄를 다른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일도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란 언제나 건드리면 더욱 커지게 되어 있고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감당할 수 없이 헛된 소문이 불길 같이 번지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누구보다 억울한 소리를 듣고 도망을 쳐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시키하고 자기의 자리를 노린다고 오해하여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은 자기 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려 하였지만 사울왕의 오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보면서 산과

들로 도망쳐 은둔생활을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왕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왕의 자리는 그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소문으로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문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

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편안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하여야 하는 것은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행복한교회)



“40년 만에 최대 폭 오른 미국 물가 ‘비싸다 비싸’” “물가 급등 ‘대도시별 체감고통 큰 차이’” “물가 인상 최대, 설령 20%”

요즘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요.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물가를 전문가들은 ‘웍-플레이션’이라 합니다.

whack(웍)은 ‘세계 치다’ 후려치다, 라는 뜻이고 inflation(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데 두 단어를 합쳐 정진없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웍-플레이션이라 합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물가나 경제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나 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 신문을 보니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전부터 5만명, 6만명, 7만명 차츰 늘어나더니 결국 하루 10만 명이 넘었어. 아아 이달 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더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리고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었는데 지금은 정상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류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 BC이라 하고 예수님 오신 후를 서기 AD라 부른다는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돌

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 그때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구절을 쉬운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허이 풍성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예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주인도 바뀌어졌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요. 전에는 복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얹혀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

내 자리는 확실히 내 자리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맡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얼마든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 만족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에는 너희가 화나고 속상하고 죽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국에 올려다 놓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떠돌이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나오

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미국 오려고 애쓰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오다가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또 배타고 오다가 빠져 죽어도 미국 오려고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받고 살기위해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미 하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게 된 것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욕심대로 내 맘대로 살면서 내게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은혜와 평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영생을 누리며 주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구원에 감사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hichristian9@gmail.com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1-6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고 세상적으로 살았고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하고 살았어요. 성경에는 이런 모습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높은 하늘 보좌에 앉혀 주셨어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국에 올려다 놓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 주셨어요.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나를 살려 주시고 하늘에 앉혀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국에 올려다 놓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떠돌이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나오

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 주셨어요.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나를 살려 주시고 하늘에 앉혀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국에 올려다 놓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떠돌이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나오

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 주셨어요.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나를 살려 주시고 하늘에 앉혀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흑인기독교인들...

(2면에서 계속)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교회 속에 있는 인종차별과 싸우고, 인종차별을 부정함으로써 백인화가 되는 것을 노리는 흑인들과 맞서고, 우리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있는 신비주의 종파와 흑인 이데올로기에 저항한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참과 거짓의 문제에 있어서 피부색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 역사를 흰색과 유럽식 빛으로 그리려는 백인들의 시도는 피부색을 문제로 만들었다. 인종차별에 맞서는 길을 따르

는 대신 서구 기독교 학문은 세속 수정주의자들의 발자취를 따랐다. 이러한 역사의 백화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다. 성경에 언급된 인물들의 실제 인종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제대로 조사하기보다 자기가 선호하는 색으로 역사를 그리는 것은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오직 백인 유럽인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은 복음 자체에 대한 모독이다.

나는 흑인 친구들이 기독교를 계속 의심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 변증학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존재하며, 도시변증학은 그 죄가 특히 소수인종에게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 세상의 인종차별과 불의 때문에 필요하다. 복음은 이민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상상할 수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과제는 서구 기독교계가 역사적(비서구적) 기독교 신앙과 융합하면서 흑인들이 경험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응하는 답을 주는 것이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기독교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하려는 문제를 다루어 왔다. 기독교가 특정 인종만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열방 구원에 대한 비전(행10장)과 예루살렘 공의회(행15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갈라디아서 2장은 인종적 구분에 근거해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문제를 더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종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

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 본인들의 회심에 호소한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인간적으로 강력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십자가의 연합에 대한 강력한 설교였다는 것이다(고전1:18).

변증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영혼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실수하지 마라.

비록 우리가 인종적 정체성, 인종차별, 그리고 불의의 장벽을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과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요 16:8).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께서 복음에 대한 필요를 밝혀 주시는 것이다.

단순히 흑인들에게 자행된 잔혹행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잔혹행위를 외면하지 않겠지만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기가 분명한 인생

어떤 집을 방문해보면 어느 집과 달리 아이들이 막 만나니 처럼 뛰어다니지 않는 집들이 있다. 가난한 집인데도 아이들 표정들이 밝다. 어른이 으면 인사를 먼저 하고는 자기 일을 한다. 나중에 밥 먹을 때만 슬그머니 나오는 그런 집이 아니다. 식사를 할 때도 먼저 손가락 들지 않고 반찬을 하나 집중적으로 공격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다. 그런 집안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른다. 그런 집안을 뭐라 표현하는가? '빠대 있는 집안, 명문가'라고 말할 것이다. 가난하지만 지킬 것을 지키는 가정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위와 같은 부러움의 소리를 한다면 아마도 '꼰대'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든 말든 별 관심이 없다. 가급적 조용히 복귀하면 된다고 한다. 게다가 퇴근하며

난다.

예배-회복과 축복의 기준

기본이 된 가정을 보면 마음이 좋듯이 성도의 삶에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예배에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배가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현금도 다립질을 해서 정성을 다해 드렸다. 그런 미신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어른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 결코 말리지 않는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아이들은 새해가 되면 교회어린이들에게 단체 세배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미리 어른들에게 은행에서 뺏직한 돈을 모아서 세배 돈 봉투를 미리 만들어 드리는데, 애들이 그것을 받으면 하는 말이 있다. '이건 새 돈이니까 현금하기 위해 따로 나눠야 되겠다.' 그 말을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 예배를 기준으로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좌우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편애하지 않으신다. 선택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고 실패하면 그 미래는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될 따름이다.

예배를 통한 영적 강건

열왕기서의 왕들의 역사를 쫓 살펴보자.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왕들이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했는가? 선민이니까 무조건 내 새끼 내 새끼하고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그랬는가? 절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왕들이 앞장서서 밤 먹듯이 우상숭배하니 이스라엘에 조공이나 바치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하고는 막 쳐 버리는 것을 보지 않는가?

반면에 예배가 온전하고 하나님 잘 섬기던 다윗의 시대를 보라. 그의 예배가 온전하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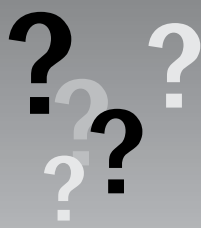
내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생활이 분명해질 때 설교가 온전히 심령에 젖어들 때 영적인 힘들이 회복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영적인 힘은 삶의 고단함과 과 어려움을 제어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더불어 예배가 회복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과 가문과 자녀손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한결같은 예배생활

삶의 회복과 축복은 예배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삶의 회복과 축복의 정점에서 점검해야 될 필수요소가 바로 한결같은 예배생활이다. 생의 곤고한 순간들마다 이를 극복할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예배이다.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안돼서 뭐 못하고 말한다. 은혜가 될 때만 헌신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대하기가 어렵다. 신앙의 관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혜가 될 때만 헌신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왜 생겨났으며 누가 기록한 것인지요? 그 유래와 저자를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 장차연 권사

-하버에서 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는 다 같은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공동체에 입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조를 생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란 사람의 '초대 그리스도 고백'이란 책을 보면 '첫째는 개종 또는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교에 입교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는 세례를 위한 준비교육이 필요해 세례 받을 자의 교리 교육용으로 신조가 사용되었다. 둘째는 예배와 예전 가운데 믿음의 엄숙한 표현들이 요구되는 예전적인 신조 문언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교도와와의 신앙적이 신학적인 논쟁들이 발생하면서 신앙을 방어할 필요가 생겨났다. 다양한 상황들은 다양한 신조적 문언들을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교리교육과 신학적 논쟁방어로 생겨

최초의 신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으나 차츰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고백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점차적으로 다른 항목들이 추가되고 확대되어 여러 형태의 신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필립 샤프란 사람이 쓴 신조학을 보면 "4세기 이후에는 하나의 형태로 굳어져 서방교회에서는 "사도신경"으로 동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신조"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필립 샤프는 이어 초대교회의 교리적 진술을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하는데 그 신조에는 "사도신경, 니케아신조,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 3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사도신경이요 다른 두 신조는 사도신경을 발전시키거나 해설한 것이다. 니케아 신조는 아리안(Arian) 이단에 맞서서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를 보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확대시켰고 아다나시우스 신조는 니케아 회의 이후에 일어난 여러 이단들과 맞서 사도신경의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품위에 관한 교리 전체를 더욱 확장시킨 것이다"라고 그 책에서 기술했습니다. 필립 샤프는 신조학이란 책에서 "사도신경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4세기 이전에 서방교회에서 만들어졌다. 사도신경은 사도의 친 저작이 아니라 교회가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피누스(Rufinus, 345-419 AD)는 사도신경은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충만을 받은 후에 기독교 교리를 사도들이 각각 한 구절씩 고백하며 합작(Symbolum Apostolicum)한 것이라며 사도신조의 저자성을 12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12사도들이 건네준 글귀들(Tradunt majores)을 정리하여 사도신조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신조)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 확정짓는 것은 의견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사도신경은 처음에는 세례를 위한 신앙고백으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점차 공예배 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 정통 신앙의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속사도, 교부들 그리고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하나의 텍스트, 문서화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에서 각자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는 것으로 만들어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빼놓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한다. 그 예배의 자리에 삶의 기쁨과 회복, 가정과 가문의 축복이 나타난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교회, 세상과 삶의 축복 (6)

-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

분주한 소리라도 내게 되면 애들 공부하니 조용하라는 소리를 듣기가 일쑤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라고 정해 주셨건만 아버지들의 핍박(?)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데 실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지킬것을 지키는 아름다움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씀하신다. 종말의 현상에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 오늘날 삶의 모습이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가 좋아야 남이 좋은 것도 의미가 있기에 주변의 이목에 상관없이 오직 자기만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데 대단히 열심이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며 부모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해 불순종과 거역을 말과 표정과 얼굴로 쉽게 드러낸다. 일상의 보통 태연한 가정의 모습이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반듯하여 가정에 질서가 잘 잡혀있는 가정을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빠대 있는 명문가문의 특징이 무엇일까? 지킬것을 지키는 가문이다. 기본이 된 가정이다. 이런 집안을 보면 참 부럽고 좋다. 그래서 그런 집 애를 데려다가 며느리라고 싶고 사위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돈이 없다 뿐이지, 진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가정이고 기본이 되어있는 가정이기에 서로 배움의 대상이 된다. 어디서나 그 인격의 절제와 훌륭함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들을 때면 다음 설날에는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목양 훈련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름의 원리처럼 깨닫는 것이 있다. 아무리 좋아도 예배에 실패하면 그 미래는 캄캄한 어두움뿐이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자녀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예배를 기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기준을 반복하고 훈련

기준은 어렵다. 원리는 별로 재미없어 보인다. 그러나 원리와 기준을 꾸준히 가르치다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듯 은혜가 터져 나오는 때가 있다. 반복이 꾸준한 훈련과 함께 할 때 연마된 참 실력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것을 잘 가르치고 가르쳐서 꾸준히 반복할 때 교훈들이 아이들의 뼈속 깊이 새겨지는 것을 본다. 그래서 마침내 기준이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가는 청년,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지킬것을 지키는 어른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기준이 중요하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과 경배하는 것, 죄 많은 인생을 찾아오신 아버지의 소원 '예배'에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배가 기준이다. 하나님은

때 다윗시대에는 주변나라가 일어서질 못했다. 하나님께서 시시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초라하기 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별거 아닌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대적을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주변에 도둑놈 사기꾼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 왜 내 주변에 도둑놈 사기꾼들이 많을까?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다. 나의 신앙 없음이, 예배의 실패가 이것을 부르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점검과 해석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배 잘 드리는 것이다. 예배가 축복의 원천이 된다. 그런데 예배가 약해지면 영적인 힘이 약해지게 되고 마침내 삶의 조건에 일희일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도저히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다. 잘 되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해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정리가 안 되다보면 매사가 뒤죽박죽으로 직행한다. 잘되면 스스로 잘난 것으로 오해하면서 교만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원망하고 살게 되니 인생 자체가 아주 혼돈스럽기가 그지없다.

이러한 연약함을 한 순간에 정리하고자 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자기를 항복시키는 것이다. 순종이 안 되면 복음을 해서라도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마침

면 은혜 안 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은혜가 안 된다 싶을 때에도 더 힘쓰고 더 애써 자신의 연약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열심을 품는 것이다.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목사님이 너무 젊어서 자신을 지도하기에는 인생의 뭔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중반일 때였는데 돌아보면 나 자신의 미숙함이 많이 보였으리라 생각이 된다. 그러나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의 신앙이란 것이 마치 길 가다가 빈 지갑을 주운 사람처럼 이리 저리 어슬렁거리며 인생의 삶을 살다라는 것이었다. 그때 되돌아 질문한 것이 기억난다.

'집사님, 제가 연소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집사님처럼 환갑이 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신앙생활 대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결국 내 질문에는 대답도 없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 열심히 일할 기회를 스스로 내어버리며 잃어버린 허송의 세월을 지나며 타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이민교회 주변에 특별히 이런 나그네 인생들이 많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혜가 떨어질지라도 때로는 은혜가 없다 싶을지라도 한결같이 팔다리를 움직여 은혜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므로 삶을 주님이 원하시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간부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다. 선악간 누군가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으니 나름의 복심(腹心)은 다 있다. 이런 복심에 대해 떠들썩하게 오간 뉴스는 의외로 많다. 문고리 삼인방이나 수문장이라는 소수 복심을 넘어 기레기들이나 콘크리트 지지층 운운하는 다수의 평가가 난무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혼자일 수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간부는 딱지나 구슬치기와 같은 놀이를 할 때 동맹을 맺고 놀이자산을 함께 공유하는

가장 친한 친구, 짝꿍, 동반자를 뜻하는 은어다. 감보, 감부, 간보라고도 한다. 어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안도 방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정치인들이 한 편 혹은 내 편임을 강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세계에는 적아의 구분이 거의 없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유유상종의 헤쳐모임을 있을지언정 의리와 충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싶다. 국민

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은 매우 희소하다. 그러나 이해여부를 떠난 진정한 관계형성은 애초부터 틀렸을 수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선지자와 선전자 등은 거의 하나님의 복심이었다. 성경가들도 마찬가지다. 신·구약 66권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세상의 상식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가감되지도 않았다. 이런 역할은 예부터 존재했다. 왕과 신하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직분 즉 사관(史官)이 그것이다. 사관은 자기의 그 어떤 것도 사실기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관은 동호지필(董狐之筆 또는 董狐直筆)로 역사를 기술하는데 권세(權勢)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자여야 한다. 성경의 기자들이 바로 그러했다. 하나님께서는 더는 좌시하실 수 없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셨다. 아브

라함은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대접하였다. 주님이 떠나시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하지 아니하다면서 그 땅에 의인 오십 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내려가 열 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느냐고 간청했으나 최악된 그 땅엔 의인이 없어 결국 멸망을 당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죽임의 땅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심이었다. 복심은 의로움을 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복심은 세상에 대한 은혜와 긍휼도 간할 수 있어야 한다. 죄는 미워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용서도 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리사욕과 불편부당함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간부들이 곳곳에 필요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복심 중의 복심이었다. 그랬기에 그는 사명의 쓴 잔으로 인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괴로워 하시면서도 그 쓴 잔을 피하지 않으셨다.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즉 성도는 이런 주님의 복심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 하였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며 주님의 복심은 철저히 그래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세라고 한다. 말세가 되면 혼란과 배신이 만연하고 믿음과 정의는 설자리를 잃어 진정한 간부가 더 절실해질 것이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였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가까이 부르신 뒤 물으셨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신 것은 그를 간부로 여기셨다는 증거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워 주신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의 간부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먼저 간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간부가 되어야 함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까닭이다. 이 놀라운 사명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간부로 택하셨기에 택함을 받은 자는 마땅한 간부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뤄야 한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세계인구 증가 못미친 기독교인 증가...

전 지구적으로 기독교는 정밀 성장하고 있을까. 미국 고든콘웰신학교 세계기독교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계 기독교 현황 보고서’는 기독교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의 허와 실을 짚고 있다. 보고서는 종교 인구 조사로 얻은 통계를 바탕으로 기독교 성장 흐름과 주목해야 할 6가지 우려를 조망했다.



우선 기독교 성장과 세계 인구 증가세의 상관관계다. 기독교가 현재 1.17%의 성장률을 보이지만 세계 인구가 1.18%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 지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었던 1901년 당시 전 세계 기독교인 비율은 34.5%였지만 21세기를 맞은 2001년엔 그 수치가 32.2%로 감소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두 번째는 타 종교 성장세와의 비교다. 보고서는 이슬람교(1.93%)가 지난 120년 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에 비해 기독교(1.18%)는 시크교(힌두와 이슬람이 혼재된 종교·1.52%) 힌두교(1.21%)에 비해서도 성장세가 느린 편이라고 분석했다.

대륙별 통계에서는 우려가 더 커진다. 보고서에서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기독교 성장률을 보인 대륙은 아프리카(2.77%)와 아시아(1.5%) 뿐이었다. 라틴아메리카(1.09%) 오세아니아(0.73%) 북아메리카(0.27%)는 더딘 성장세를 보였고 유럽(0.06%)에서는 기독교가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의 기독교 설문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의 애런 엘스 에디터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폭발적인 성장이 없었다면 복음화율은 정체되고 기독교인의 비율도 급격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기독교인들은 각국의 도시로 향하고 있지만 기독교 성장세는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빠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도시 인구 증가율은 2.11%이며 세계 인구 절반 이상(57%)이 도심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거주자 중 기독교인 증가율은 1.5%에 그쳤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우려는 대다수 비기독교인이 여전히 기독교인을 알지 못한다는 점과 미전도 인구 증가 추세다. 보고서는 전 세계 비기독교인 5명 중 4명 이상(81.7%)이 기독교인에 대해 모른 채 살고 있다고 밝혔다.

엘스 에디터는 “비기독교인 5명 중 4명 이상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기독교인과 관계를 맺어 본 경험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미전도 인구가 27억5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상투적 위로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주시잖아요...” 주위에 이 성경구절(고전 10:13)을 내밀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건넨 적이

있다면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15일 영국 기독교 잡지인 ‘프리미어 크리스천티투데이’에 따르면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앤디 카인드 목사는 최근 ‘그리스도인들이 삼가야 할 5가지 상투적 위로’를 제목으로 한 기고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temptation)은 유혹에 관한 구절이지 외부적 고난에 대한 구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너무나 자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실직 등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인드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곧 나아질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남발한 적이 없는지도 돌아보자. 덕담으로 건넨 말이지만 막연한 낙관주의에 기댄 공허한 위로는 될 수 없다. 카인드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동시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양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 또한 성경적이라 보기 어렵다. 카인드 목사는 “설탕을 그냥 먹는 걸 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이 ‘그냥’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서 “행복은 인간의 많은 감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균형 잡힌 영적 식단의 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나은 누군가를 준비시켜 놓으셨다’ 등의 메시지 또한 자칫 하나님의 존재를 도외시한 위로는 될 수 있다. 카인드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후1:3-4)면서 “위로를 건넬 때 상투적인 말은 삼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美 교회 76% ‘단일 인종’

미국 목회자의 대다수가 다인종 교회를 지지하지만 자신의 교인들은 주로 단일인종이라고 답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2021년 9월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는 자신의 교회에 ‘인종 또는 민족적 다양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7년의 13%보다 증가한 수치다. 다인종교회란 교인 가운데 한 인종 또는 한 민족이 80% 이하인 교회를 말한다. 반면 76%는 자신의 교회가 주로 ‘단일인종 또는 민족’으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라이프웨이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할



당시, 목회자의 93%는 “모든 교회가 다인종 교회가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이 지지율은 88%로 떨어졌다.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 사이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2017년에는 목회자 80%가 교회가 인종적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 “강력히” 동의한 반면, 올해는 68%가 그렇게 답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동의하는 목회자는 같은 기간 13%에서 20%로 증가했다.

스콧 매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전무이사는 성명을 통해 “교회에서 더 많은 인종적 다양성을 향한 목회자의 바람은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 집회가 있던 지 며칠 만에 측정됐다”며 “그 해의 사건들이 목회자들에게 인종적 화해의 필요를 상기시켰지만 매주 교회에서 이런 일치를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44세 이하인 젊은 목회자들은 고연령층 목회자보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교회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인종별로는 흑인 미국인 목회자의 97%가 인종적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백인 목회자 87%, 타민족 목회자 83% 순이었다.

또 흑인 목회자의 21%가 ‘한 달에 몇 번씩 인종 화해에 대한 설교한다’고 답해, 이에 대해 모든 인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에서 인종 화해에 대한 설교를 미국인 목회자의 약 40%는 ‘1년에 몇 번씩’, 19%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답했다. 반면 25%는 ‘전혀 또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매코넬은 “지역사회 내의 태도, 문화적 전통과 우정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인종 화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4분의 1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2020년 베일러대학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신자 수는 20년간 3배가 증가했으며, 현재 복음주의 교회와 가톨릭교회의 약 4분의 1이 ‘다인종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5,000개 이상의 교회 표본과 베일러, 듀크, 일리노이 대학의 사회학자들이 1998년, 2006-2007, 2012, 2018-2019년에 수집된 ‘국가 교인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했다.

연구진은 다인종 교회가 증가했음에도, 담임 목사 가운데 여전히 백인이 76%를 차지한다며 우려했다.

베일러 대학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다인종 교회의 비율은 주류 개신교가 1998년 1%에서 2020년 10%로 증가했고, 복음주의교회 7%→22%, 오순절교회 3%→16%, 흑인교회 1%→17% 등으로 나타났다.

미 민주당 현역의원 30명 재선도전 포기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미국 민주당 현역 하원의원이 3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20일 집계됐다. 1992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많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올해 중간선거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나타내는 암울한 지표로 평가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캐슬린 라이스 뉴

욕주 하원의원이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30번째 민주당 의원이 됐다”고 보도했다. 라이스 하원의원은 지난주 “삶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유권자들에게 봉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은건파인 라이스 의원은 자신의 생일날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을 하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에 암울한 이정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집계에 의하면 선거 전 은퇴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 30명에 달한 건 9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41명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다.

스티브 이스라엘 전 하원의원은 “대부분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은퇴를 결정한다”며 “의회에 대한 (민주당) 불안감의 직접적 결과”라고 말했다.

2018년 중간선거 때는 공화당 하원의원 34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분출돼 선거 승리 가능성이 작아지자, 현역 의원들이 미리 정계 은퇴를 대거 발표한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물결이 확산하며 공화당은 하원 41석을 잃었다.

올해 민주당은 4년 전 공화당이 처했던 상황보다 좋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의회에서 지연된 핵심 정책 의제,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텃밭으로 평가되는 지역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 버클리) 정부학 연구소가 지난주 민주당 우세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7%에 그쳤다. 부정평가가 48%보다 낮았다. 캘리포니아주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의 경우 부정평가가 50%에 달했다. 긍정평가는 30%에 불과했다.

이날 발표된 CBS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 부정평가는 57%였다. 버지니아대 정치센터 카일 콘딩 선거 분석가는 “올해가 민주당에 좋은 해가 아닐 것이라는 신호가 많다. 민주당에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면 더 많은 은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오미크론 사망자, 델타 사망자 추월

미국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사망자가 델타 변이에 따른 사망자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위험이 낮다는 평가 속에서도 암모적인 전염성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같은 이점이 상쇄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진행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확진자 수의 후행지표인 사망자 수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증가하면서 델타 변이 확산 당시의 사망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NYT 집계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미국에선 3016만36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15만4750여명이 사망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한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는 1091만759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고 13만2616명이 숨졌다.

찰스 하지는 프린스턴신학교에서 1822년부터 그가 죽기까지(1878) 50년 넘게 가르쳤다. 찰스 하지에게 신학을 배운 학생들은 3천명이 넘는다.

찰스 하지의 신학은 당시 전통적 개혁신학에서 수정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학과(New School) 학자들과의 길고 끊임없는 투쟁 속에 전통적 칼빈주의 개혁주의신학을 방어하면서 그의 신학이 세워졌다.

구약학(Old School)의 핵심 지도자는 프린스턴의 찰스 하지이며, 신학과(New School)의 지도자들은 예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회중교회의 뉴잉글랜드 신학(New England Theology)자들이다.

당시 프린스턴신학교에서는 라틴어로 된 프란시스 튜렌틴(Francis Turretini)의 "변증신학 강요"(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를 교과서로 사용했는데, 이 책을 대체하는 조직신학 교과서가 바로 그 유명한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 세 권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찰스 하지의 신학이 프린스턴신학(구 프린스턴신학)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었다. 그야말로 초기의 프린스턴신학은 찰스 하지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은 한국의 박형룡 박사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한국장로교 교회의 기초가 개혁주의신학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세기 미국의 영적 상황은 매우 침체되어 있었다.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열기는 모두 식어져 버렸고,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이 미국 교회에 파도처럼 밀려들어왔고, 찰스 하지는 이 계몽주의사상이 교회와 신학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19세기 뉴잉글랜드 회중교회의 신학과(New School)는 전통적인 칼빈주의 개혁신학에서 점점 멀어졌고, 동시에 보스턴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유니테리언신학과 또한 예일대학 중심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뉴잉글랜드신학의 리더인 나다니엘 테일러(Nathaniel William Taylor)의 테일러리즘(Taylorism)을 비판하면서 찰스 하지는 열심히 칼빈주의 전통 개혁주의신학을 변증했다.

미국의 뉴잉글랜드 회중교회들은 자유주의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1805년 유니테리언 신학자 헨리 웨어(Unitarian Henry Ware, 1764-1845)가 하버드대학의 신학과 과장에 임명되었다. 하버드대학 신학과는 유니테리언신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에 반대하여 1817년 앤도버 신학교(Andover Theological Seminary)가 세워져 전통신학에 근거한 회중교회 목사들을 양성했다(그러나 나중에 앤도버신학교가 앤도버뉴튼신학교가 되었고 Andover Newton Theological School 역시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

갔으며 2017년부터는 앤도버뉴튼신학교는 예일신학대학에 부속되었고 이제는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과는 무관한 현대신학을 가르친다).

예일대학의 나다니엘 W. 테일러(Nathaniel William Taylor, 1786-1858)는 대각성운동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그가 예일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부흥주의자 티모티 드와이트(Timothy Dwight,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뉴잉글랜드신학의 지도자인 나다니엘 테일러는 인간의 타락교리를 후퇴시켰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 정통적 개혁주의 교리를 매우 약하게 만들었다.

타난다고 주장한다(The imputation of Adam's sin follows hereditary depravity and is its effect).

많은 학자들은 테일러를 비롯한 예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뉴헤이븐(뉴잉글랜드신학) 신학자들이 아담의 죄의 간접적 전가교리를 주장한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간접적 전가론을 가르쳤다는 말이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연구해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담의 죄의 간접적 전가를 가르치지 아니했고 그의 입장은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에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교리를 가르쳤다.

르쳤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개념은 상당히 언약적(대표성의 원리)으로 설명되어진다. 실재론 혹은 언약(대표적)의 원리는 모두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 전가론이다.

에드워드는 그의 책 "원죄론"에 의하면 "뿌리와 가지는 하나이며...이 하나됨으로 인해 모든 가지를 통해...뿌리의 변화와 공존한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의 마음에는 악한 성품이 있는 데 이것은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그 후손들의 마음은 아담이 품은 것과 같은 것이다"(root and branches being one...that by

는 전혀 다른 사상을 가졌다. 테일러는 아담의 죄의 간접적 전가를 가르침으로 이미 전통적인 칼빈주의에서 많이 떠났다. 이러한 입장은 당시 신학과(New School)와 예일의 입장이었다.

당시 프린스턴신학교의 찰스 하지는 이러한 테일러의 신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소위 말하는 제2 대각성운동의 리더인 찰스 피니(Charles Finney)는 신학과(NewSchool) 장로교 목사인데 그의 인간관은 나다니엘 테일러의 신학과 비슷하다. 테일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정통적인 칼빈주의에서 많이 벗어나, 사람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테일러의 인간론은 부흥사 찰스 피니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중심으로 일어난 제1차 대각성운동(Great Awakening)과는 큰 차이가 있다. 조나단 에드워드 중심의 제 1차 대각성운동은 전통적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기반에서 일어난 대각성운동인데 그들은 부흥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찰스 피니의 중심으로 한 2차 부흥운동은 상당히 인간의 의지 중심의 알미니안적인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찰스 피니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의 두 번째 축복"(second blessing of the Holy Spirit)을 받고 더 높은 수준의 성화인 그리스도인 완전(Christian Perfect)에 이를 수 있다는 교리인 완벽주의(Perfectionism)의 옹호자였다. 찰스 피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타락하여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찰스 하지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벤자민 워필드는 그의 책 "완전주의(Perfectionism)"에서 "찰스 피니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찰스 피니의 신학과 제2 대각성운동을 비판하였고, 그의 스승인 찰스 하지는 부흥사 찰스 피니와 그의 신학적인 지도자인 나다니엘 테일러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정통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방어하면서 보존하였다.

찰스 하지와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이러한 뉴잉글랜드(뉴헤이븐) 신학과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하는 제2 대각성운동과 그들의 신학적 지도자인 예일대학의 테일러를 열정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들은 테일러가 정통적 칼빈주의를 수정한 데 대해 분노를 느꼈고 나아가서 테일러의 사상 체계는 전혀 칼빈주의가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이며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펠라기안(Pelagian)이라고 선언했다.

(9면으로 계속)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역사 (4)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78)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찰스 하지는 원죄교리의 직접전가론 주장하며 정통 개혁주의신학 방어

제 1차 대각성운동-조나단 에드워드, 직접전가론

제 2차 대각성운동-찰스 피니, 간접전가론

원죄(Original Sin)교리에 대한 테일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아담의 죄가 전가(Imputation of Adam's sin)되어 죄인이 된 것은 아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된 것은 자기가 범죄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테일러는 인간의 원죄, 즉 아담으로부터 직접적인 죄의 전가(immediate imputation)를 부인했고 간접적 전가(mediate imputation)를 주장했다.

간접전가론은 아담의 죄에 대한 죄책감은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그 부패함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한다(Being mediated through that corruption of nature inherited from Adam). 직접전가론은 아담의 죄의 전가가 본성의 부패에 선행하며 전가된 죄책이 원인이 되어 부패가 뒤따른다고 주장한다(The imputation of Adam's sin precedes corruption of nature and is reckoned to be its cause). 그러나 간접전가의 교리는 아담의 죄의 전가가 유전적 타락에 뒤따르고 유전적 전가의 결과로 타락이 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 가운데 간접 전가론(mediate Imputation)을 의미하는 "peccatum alienum" or the problem of an "alien guilt"을 문구가 있다. 이 문구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원죄론(Edwards' treatise on Original Sin)의 제목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원죄교리는 매우 종합이라는 사실이다. 에드워드는 원죄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하여 혁신적인 이론들을 사용하여 원죄의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면서 원죄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고 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원죄론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게 정통 칼빈주의 입장에서 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담 안에서 인간의 연대성(The Solidarity of Mankind in Adam), 혹은 통일성 (the unity of man)을 주장한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 안에서(in Adam) 전 인류(후손)가 함께 범죄했다는 사상이다. 이와 같이 에드워드는 실재론(Realism)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통일성(unity)을 가

virtue of this oneness, answerable changes of effects through all the branches coexist with the changes in the root: consequently an evil disposition exists in the hearts of Adam's posterity, equivalent to that which was exerted in his own heart, when he eat [sic] the forbidden fruit).

존 머리(John Murray)는 그의 책 "The Imputation of Adam's Sin"에서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직접 전가됨을 변증하기 위해 로마서 5:12-21을 주해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입장을 지지했다.

"본성의 부패(depravity of nature) 혹은 에드워드가 칭하는 "악한 성품의 첫 번째 존재"(first existing of an evil disposition)는 "전가의 결과"가 아니라 전가 자체의 본질적인 요소이다(not a consequence of imputation but an essential ingredient of the imputation itself).

그러나 테일러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장하는 아담의 죄의 후손들에게 직접 전가되는 입장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분명한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2) 802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882 3280 Morris Rd., Lansdale, PA 19387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St., Levittown, PA 1905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410) 461-1235, Fax: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주일, 주일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 생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Cel: (213) 703-9961 5502 Old Behnel Rd., Crestview, FL 3253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74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일산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 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635-1842(H), (254) 601-4933(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k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54)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생애와 작품들 (3)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6. 형식과 제도를 배제하는 하나님중심 사상

개혁주의 신학자 패커(J.I. Packer)는 '성경적 신앙이 하나님중심 사상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다름 아닌 오웬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스피칼 역시 오웬을 칼빈과 칼빈주의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보았다.

오웬의 저작들에는 펠라기안 이래로 면면히 흐르는 소시니안,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이성주의, 인간중심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 로마카톨릭의 형식주의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의 어조는

왕정복고 이후 그의 남은 인생을 반 추방형식으로 집에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목사요, 설교가로서 오웬의 문서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였고 그의 저술은 우리 세대의 청교도 비국교도주의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오웬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 그는 메리 루크(Mary Rooke)와 결혼 후 31년간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딸아이 하나만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고 나머지는 모두 일찍 죽었다. 그나마 살아남은 딸의 결혼도 이혼 후에 친정에 돌아와 산 지 얼마 안 되어

다. 인간 영혼의 분석을 통찰력 있게 묘사하였다. 오웬은 로마서 8장 13절에 근거하여 이 논문을 썼는데, 철저한 탐사를 통하여 우리 속에 감추인 동기와 정욕과 본능과의 싸움을 선언한다.

그 뒤를 이어 1658년에 "유혹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책을 출간하였다. 그 책은 그들이 권력을 잡을 때에 교묘한 도덕적 부패에 대하여 잠복해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경계한다. 1668년에 그는 많은 책을 내었는데 특히 "내재하는 죄"라는 책이 주목을 끌었다. 이것은 시편 130편을 강제한 것으로 수많은 사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는 전 생애를 씀이 없는 학문연구와 목회자로서 열정적인 삶에 바친 결과 말년에 담석증과 천식으로 고생하다 1683년 8월 2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런던 힐 묘지에 묻힘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나는 교회라는 배를 폭풍의 바다에 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나 같은 사공 한 사람이 사라진들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위로의 유언을 남기고 오웬은 이 땅을 떠났다. 그는 당대의 가장

오웬은 전 생애를 씀 없는 학문연구와 목회자로서 열정적 삶에 바쳐 최후의 청교도신학자로 종교개혁 이후 가장 심오한 신학저서 저술자

마치 하나님의 정염(情炎)에 불타는 구약의 선지자와도 같이 분노로 격앙되어 있었다.

1673년 그동안 장로교회와 독립파 회중교회의 목사들은 각 교구에서 자주 대립하였는데 리처드 백스터의 제안으로 장로교회와 독립교회가 연합하자는 운동에 오웬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갈등이 해소되었다. 오웬은 가톨릭식으로 삼상관계가 형성되는 교회의 교구제도와 한 교구 내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하나의 교회만을 세우되 이를 노회단위로 모이게 하는 일에도 반대했다.

개신교 진영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은 매우 절실하였던 과제였고 공적인 일에 항상 관여하였던 그는 즉각적으로 환영하며 참여하였지만 그러나 의회는 비국교도들에게 관용을 허용치 않는다고 발표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1660년

결핵으로 사망했다. 오웬은 1676년 훌륭한 그의 아내 메리 루크를 잃었으며, 18개월 후 재혼하였다.

7. 그의 작품들

그는 80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1647년에 그의 저작 중 가장 훌륭한 작품인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죽음의 죽음"을 간행하였다. 이것은 속죄에 대한 고전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진술로 인정받았다. 1677-8년에 그는 기념비적인 "성령론"의 전반부 두 부분을 간행하였고, 1681년에 3편의 고전적인 논문을 썼다. "그리스도론", "신령한 마음의 은혜와 직무",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묵상과 강화"가 그것이다.

1656년에 그는 "신자 안에 있는 죄 죽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이 책으로 인해 많은 신자들로부터 찬사와 감사를 받았

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세 권의 책은 신자에게 내재하는 죄에 관하여 철저하게 파헤친 책이다. 죄의 존재와 작용, 사람 안에 있는 선과 은혜의 결핍,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또한 순종과 유혹 사이에 있는 인간의 시험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죄를 죽임에 대한 의미, 필요성, 적용과 그 방법까지 전개해 나간다.

8.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 인격자

존 오웬(John Owen)은 뜨거운 가슴으로 사역했던 목회자였다. 그의 거룩한 영혼은 하나님만을 더욱 더 즐거워했고 건강했던 그는 완전히 쇠잔해졌다. 잦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된 업무로 인해서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진 것도 여러 차례였다.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

저희 모임에서는 격월로 LA 근교의 자연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작은 수양회를 갖습니다.

'침,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치유'라는 주제로 2박3일 일정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 후 둘째 날 밤에는 예배와 교제로 어느 정도 마음이 녹아졌을 때 마음 속 응어리를 꺼낼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 왜 해야 되요?'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지만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한 마음의 치유는 마치 수술이후에 나이가 있어 보이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신뢰할만한 사람들과 나눴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때 인도자가 조심해야 할 것 3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 왜 해야 되요?"

첫 번째로 주위의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꺼내는 분에 대해 평가, 곧 옳고 그름 혹은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동정도 아니고 단지 '나는 너를 이해하며 너와 함께 해' 라는 마음의 자세로 임하도록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혼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늘 건강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괴로웠던 기억을 풀면 시원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입을 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나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나눠보자'고 제안 했을 때 이야기보따리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해어진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남편분이 '나라도 당신 같은 사람과는 사할도 못할것을 거요'라는 실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존심이 세고 예민한 그 여성분이 늦은 밤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 주위에서 안정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보따리를 풀고는 나중에 스스로를 너무 노출시킨 거 같아 마음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절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실제로 풀린신학도의 교수였던 크래프트 박사가 한 여성의 내적 치유를 도와준 후에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드러나게 했다'며 소송을 해서 진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기본적으로 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개인의 이야기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석자가 신뢰감을 갖고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속의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삼채받고 고립되어 목마를 삶을 살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요4:4-42). 몇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녀의 삶을 조율해 새롭게 태어나게 도우십니다. 한부모들이 등에 멘 무거운 가방처럼 그들을 묶고 있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향해 나가도록 인도자들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혼률의 증가로 한부모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한부모 모임을 섬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정리해봅니다.

▲상담문의: kdrministry@gmail.com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 Tel: (516)620-2004, www.mgtheasians.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37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8:45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8, www.mcaekyo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사백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 (718)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www.cpcch.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주산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문화목회: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 Tel: (646)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연회: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Tel: (718)861-2171, Fax: (718)861-3631 livingstonech.org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사택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229-2658, www.nyevangelical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1:50분 주일학교 오후 1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ly Ave., Hicksville, NY 11801		어린양개척교회 담임목사: 유승혜 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s: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학교: 오후 2: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nur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cq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목,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일 새벽,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성경공부: 목,토,일(금) 오후 7:30 Tel: (604)584-5780, www.pccc.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안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9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동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3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un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tcal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교회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현직 신학교 교수 2. 로마노스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ot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부모를 기쁘시게 한 자녀를 효자라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한 자를 열녀라 하고 왕을 기쁘시게 한 자를 충신이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선교사님이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주일아침에 벨로르 자매가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은 채 교회당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 "집에 소가 아침 일찍 외양간에서 도망을 갔는데 별판을 뛰어다니며 소를 찾다가 예배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면서 드리려고 교회로 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한 선교사님이 예배시간에 벨로르 자매의 소를 찾도록 함께 기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 잃어버린 벨로르 자매의 소가 예배당 문 앞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온갖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복의 신앙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예복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창5:24). 동행이란 "어떤 목적지를 함께 가는 동반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즐거운 동반자가 있고 불편한 동

반자가 있습니다. 즐거운 동반자가 되려면 1)뜻이 일치해야 하고 2)도덕적으로 조화가 되어야 하고 3)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아모스3:3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라고 하였습니다. 뜻이 맞지 아니면 동행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면 반드시 행복하고 즐거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을 일으킨 이반 뢰브츠는 광산촌에서 아버지를 도와 어릴 때부터 광부일을 해오면서 술과 마약과 폭언으로 찌들린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16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새벽1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주여! 당신의 뜻에 굴복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10년 만에 응답되어 웨일즈에 이반 뢰브츠를 통해 거대한 성령의 불길기 타올랐고 영국에서 200만이 넘는 회심자가 생기고 그 불길기 온 세계로 번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성결한 삶과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이반 뢰브츠 같은 성도를 찾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대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복은 사악한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창5:21-23). 노아홍수 직전의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자신을 세속에서 지켜 왕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결하게 살며 친밀한 기도생활에 성공할 뿐 아니라 그 사악한 시대에 자녀들을 모두 믿음으로 키운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예복의 신앙은 사악한 시대에 가정중심의 신앙을 지킨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복을 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현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House는 있으나 Home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따뜻한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갔다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만 보고 밥먹는 시간에도 열심히 셀폰으로 채팅하기에 바쁘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님과 눈맞추고 대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져간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오래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상에 앉아 찬송하며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이 많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는 어떤 선교사가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범죄하여 교도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기들이 볼 때, 한 번도 책을 조용히 읽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의 공격목표는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귀의 계락을 파악하고 깨어 기도하며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복의 신앙은 심판을 선포하는 신앙이었습니다(유1:14-15). 예복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사악한 시대에 가정중심의 신앙생활에 성공했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의분을 안고 회개를 외치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일화입니다. 소돔성에 죄악이 관영하자는 노인이 날마다 길거리에서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노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조롱하며 돌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할아버지! 아무도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두세요"하며 말리자, 할아버지는 "내가 외치는 것은 내가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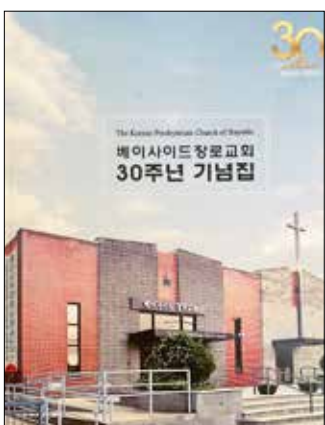
범할 수 있기 때문이야!"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정체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길이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주위의 생명을 대해 책임지는 삶, 생명을 건지는 파수꾼의 삶인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패역하여 죄악이 관영할 때요, 흥수심판 직전의 시대이므로, 예복이 이런 진리를 외치며 다닐 때 그는 이미 테러당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복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를 주님오시는 날 영광스런 들림으로 천군천사들 앞에 세워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나는 죽고 내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예복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악한 시대에 가정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ngkpkak@hotmail.com

'주님신 교회사명 이루려 수고한 헌신의 흔적' 소개

"베이스이드장로교회 설립30주년 기념집" 발행

1991년 8월 설립된 베이스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가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월 '베이스이드장로교회 30주년 기념집'(사진)을 발간했다. 이종식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라는 권두언에서 "핏덩이 같은 시절을 벗어나 장년으로 자라게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여러 번 예배장소를 옮기며 지경을 넓혀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게 됐지만 아직 복음으로 정복할 곳이 많으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전파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집은 '주님 주신 교회의 사명 이루려 수고한 헌신의 흔적들'이라는 소제를 달고 △권두언에 이어 △축사와 △사진으로 보는 30년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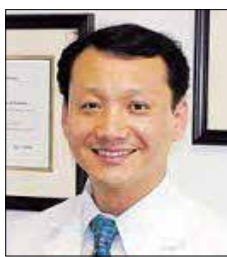
사 △교회개혁과 그 30년 이야기를 소개했다. 축사는 본 교회 장로들과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를 비롯한 외부 인사들과 뉴욕교계 언론들의 메시지를 게재했다. 또 현재 교회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의 열매가 있는 교회 △제자훈련, 그 값진 열매 등의 제목으로 현재 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및 선교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토요학교 등 교육으로 교회의 베이스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본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청년, 희망의 불꽃 등의 제목의 내용을 게재했으며 마지막



베이스이드장로교회 30주년 기념집

페이지에는 이종식 목사가 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도도 마무리했다. 베이스이드장로교회는 2021년 8월 29일 설립30주년 기념행사를 주일예배로 대신했으며 기념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팬데믹으로 어려운 교회 및 단체 그리고 선교지를 후원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B형 간염

40대 중반의 J 씨는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다.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그는 두 달 전부터 쉽게 피로하고 가끔 속이 메스꺼움을 느끼고 입맛이 없었다. 평소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했고 건강검진은 4년 전에 혈액검사를

그는 의사로부터 B형 간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웹사이트에서 간염에 관한 기사들을 읽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J 씨는 사업상 술을 자주 마시는 데 가끔 술잔을 돌렸던 것이 기억났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간염에 걸린 주된

주삿바늘, 성적 접촉, 수혈 등에 의해 감염

해서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과거에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주위의 권유로 검진하고자 병원에 왔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나 콜레스테롤도 없었다. 혈액검사를 했는데 간수치가 높아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B형 간염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J 씨는 고민에 빠졌다. 수혈을 받은 적도 없고 주위에 간염 환자도 없는데 자신이 간염에 걸렸다는 말을 믿기 어려웠다.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의 권유대로 J 씨는 가족들 모두 간염 검사를 했고 간염 백신을 맞았다. J 씨는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viral DNA가 높아 간염 치료를 시작했다.

B형 간염은 한국인의 약 8 퍼센트에서 진단되며 사회적으로도 예방 노력이 절실한 질병이다. B형 간염은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소독되지 않은 주삿바늘이나 성적인 접촉,

수혈 등에 의한 것이다. 출산할 때 환자인 산모에서 아기로 전염되는 경우도 흔한데 이런 경우 아기의 90퍼센트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다. B형 간염은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으로 구분되는데 급성 간염인 경우는 잠복기가 1-4개월 정도고, 잠복기 후에 피로감이나 오심, 황달과 같은 A형 간염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A형 간염과 차이점은 B형은 5%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즉, 간의 염증이 회복되더라도 바이러스는 죽지 않고 간에 그대로 머물면서 간조직을 만성적으로 파괴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일단 급성 B형 간염이 만성으로 진행하게 되면 계속적

인 간세포의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파괴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며 그 차이는 간세포 재생에 달렸다고 한다. 만성 간염은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후에 간경화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하게 된다.

한국인은 B형 간염 보유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좋고 음식도 자기 그릇에 담아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문의:213-383-9388



월넛크릭GIM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축하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민족교회들 간 협력으로 교회사명 감당

SF 월넛크릭GIM교회 설립20주년 예배

월넛크릭GIM교회(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Church of Walnut Creek, 담임 정윤명 목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3일 지역교회 연합사역에 동참한 교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축하예배를 드렸다. 정윤명 목사는 "월넛크릭GIM교회의 창립 후 SF 베이 지역 내의 여러 다민족교회간의 협력된 교회 연합으로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글로벌 국제선교 교회연합을 이뤄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하기위해 올네이션스 중보기도 연합컨퍼런스, 글로벌 다민족콘서트, 글로벌 국제선교대회를 통해 교회의 복음사명을 여러 민족교회들 간의 협력으로 함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미국내와 올네이션스를 향해 사역을 넓히게 됐다"고 전했다. 정윤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남가주의 Bill Matthews 목사(Oak park christian 교회 원로), Kevin Waldrop 박사(뉴멕시코 주 South-West University)와 Daniel Cheng(Encounters

Christian Church, Sunnyvale) 산호세 지역 타이완교회 담임목사의 축사와 아울러 샌프란시스코의 정관봉 원로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Bill Matthews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월넛크릭GIM교회 창립으로 다민족 선교사명을 통해 국제선교대회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며, "동 교회창립 후 이웃 민족교회들과의 협력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30여 여러 다민족들이 SF 베이 지역에서 매년 국제선교대회를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각 지역에서 교회간의 연합사역을 이루도록 월넛크릭GIM교회의 비전과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Kevin Waldrop 박사는 월넛크릭GIM교회 연혁과 미션스테이먼트 발표를 한 후 꺾박받는 민족교회들을 위해 함께 사역할 것을 권했다.

축하 순서에는 미국교회 Virtual 합창단의 특별찬양과 북가주 지역 아름다운여인들의 모임 크로마하프팀(대표 강영혜 음악선교사)의 특별 연주가 있었다. <기사제공: 월넛크릭GIM교회>

미국개혁주의신학의 역사

(7면에서 계속) 테일러에 의하여 주도된 뉴잉글랜드(뉴헤이븐)신학 때문에 19세기 후반부터 대부분 뉴잉글랜드의 회중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급격하게 나아가게 되었다. 찰스 하지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프린스턴대학(당시의 이름은 프린스턴대학의 전신인 the College of New Jersey)에서 사역한지 몇 개월 되지 않지만 에드워드의 신학은 예일이 아니라 프린스턴에서 계승된다고 주장했다(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인 아론 버Aaron Burr, Sr

가 The College of New Jersey 학장으로 재임 중인 1757년 젊은 나이 41세에 갑자기 죽자 프린스턴대학에서는 그의 장인인 조나단 에드워드를 3대 학장으로 초빙했다. 프린스턴대학의 첫 번째 학장은 조나단 디킨슨 Jonathan Dickinson)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58년 1월에 프린스턴에 도착했고 2월 16일 학장으로 취임하여 졸업반 학생들에게 집중하여 강의를 했으며 조나단 에드워드는 당시에 사람들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1758년 3월 22일 사

망했다. 시간적으로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에 몇 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일대학은 그가 그곳에서 학업을 했고(학사, 석사), 졸업 후 예일에서 가르쳤고 에드워드의 제자들은 모두 예일대학에서 공부했다(예일대학교는 학교 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의 저작물을 26권으로 출판하기는 처음이다.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Yale Edition 26 vols).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 에 관한 자료는 예일대학이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KHL0206@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남부뉴저지선교훈련원 1기 선교훈련생 모집

남부뉴저지선교훈련원 제 1기 선교훈련생을 모집한다. 훈련기간은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이며 훈련장소는 뉴저지 대안교회(담임 백형원 목사). 등록비는 100달러(부부 150달러). 뉴저지실버미션(대표 양춘길 목사)의 도움으로 남부뉴저지교협이 후원한다.

▲문의: (732)225-7337(총무 이호영 장로)

성인봉사자 모집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성인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 분야는 △강사 △시니어 프로그램 보조 △사무행정(문서작성, 우편발송, 번역 등) △행사 및 후원모금 지원 △미디어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보조이며 봉사시간에 따라 패밀리터치 강의 무료 수강과 자격이 되는 경우 대통령 봉사상 신청 가능, 연말 자원봉사자 감사식 초대, 미션 동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방법은 웹사이트(www.familytouchusa.org/donate-volunteer)나 이메일(info@familytouchusa.org),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201)242-4422

미셔널처치 컨퍼런스 난민선교

뉴저지 목사회와 실버선교회, 러브뉴저지, GUM이 공동주최하는 미셔널처치 컨퍼런스 난민선교가 3월 18일(금) 오후 7시 30분, 19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오픈집회 오후 7시에 필그림선교회에서 열린다. "우리에게 다가온 선교지"라는 주제로 강사는 지용주 목사(시리큐스한인교회), 황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Pam & Gary 선교사(Dayton, OH) 외 난민사역팀. 참가비는 30달러(식사, 자료집 포함).

▲문의: (201)290-5937/김형찬 장로, 566-8930/고대웅 집사

목회자, 사모 위한 회복사역 리더십과정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사모를 위한 회복사역 리더십과정-Prasso Course"가 3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미동부시간)에 열린다. 등록비는 120달러(교재비 포함). 입금자에게 교재를 미리 우편으로 우송한다. 등록링크: <https://forms.gle/vRvsg79LXuN6PkeC8>

▲문의: (646)300-4790

뉴저지목사회, 온라인 소통위해 홈페이지 오픈

뉴저지목사회(회장 윤명호 목사)가 홈페이지(kacanj.org)를 오픈했다.

뉴저지목사회는 홈페이지 기능에 대해 △뉴저지에 있는 선교단체 및 기관들과 연결 창구 △목사회원들을 연결시키는 온라인 구심점 △다음 회기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역내용의 열람창구 △목사회 역사가 연결 계승될 수 있는 기록물 보관소의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목사회의 역사와 소개 △주요 사업 안내 △산하기구와 협력 기관의 정보 그리고 △사진과 공지사항을 통한 홍보로 이뤄져 있다.

뉴저지목사회는 "새로 개설된 목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더 활발한 사역과 섬김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온라인 소통에 더욱 더 힘을 쏟는 목사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하나은행, 더나눔하우스에 후원금 전달

지난 2월 16일 하나은행 설광현(Kevin Kim) 부행장이 한인노숙인쉼터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목사)를 방문,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이날 쉼터

입 후원금으로 5천 달러와 식료품을 전달했다. 더나눔하우스는 쉼터구입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

▲후원문의: (718)683-8884

웨슬리언 성서적 경건운동 회복

글로벌웨슬리영성목회네트워크, '카리스마 리바이벌' 개최

글로벌웨슬리영성목회네트워크(공동대표 이성철 김정호 한의준 목사)가 주최한 '카리스마 리바이벌(Charisma Revival)'이 2월 21일 저녁 4시 30분 후러심제일교회에서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24일 정오까지 개최됐다.

개회예배에서 공동대표 김정호 목사(후러심제일교회 담임)는 "지난 2년간 무기력과 불안, 비주체성으로 살아온 목회자들에게 걱정은 그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주어진 목회를 잘하자는 취지로 이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목사는 "카리스마 리바이벌이 '감리고 웨슬리언 성서적 경건운동의 회복'에 뜻을 모으고 100명을 기도했는데 전국에서 신청이 와서 107명에서 끊었다"며 한인목회, 타인종목회, 3-40대 목회자, 여성목회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개회예배는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 사회로 기도 권혁인 목사, 환영사 김정호 목사, 설교 김광태 목사, 축도 이철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광태 목사(시카고제일감리교회 담임)는 "카리스마 리바이벌'(담후1:3-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디모데는 탁월



'카리스마 리바이벌' 참석자들이 첫날 저녁 기념촬영 했다.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바울의 조언이 본문"이라며 "카리스(은혜)는 이미 받았지만 카리스마(은사)를 받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언약 안에서 다시 목회적 카리스마를 갖고 목회에 불을 붙이라"고 말하고 "기도할 때 은사가 성장한다"며 이번 모임이 그 기회가 되기를 강조했다.

저녁식사 후에는 7시10분부터 20분간 류재덕 목사 인도로 찬양과기도 시간을 가진 후 박승호 교수(우하이오 연합신학대학원)의 강의를 이어졌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오전 오후에는 이성철 목사(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와 김성찬 목사(뉴욕통아일랜드서지방감리사), 박승호 교수가 계속 강의를 진행했으며 저녁에는 강사들과 참석자들이 직접 치유사역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리스마 리바이벌'은 2022

년 제1회를 시작으로 계속되며 이날 '고백과 서



퀸즈장로교회 메타버스 세미나가 줌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킹덤버스로 메타버스를 이긴다

퀸즈장로교회, 줌으로 메타버스 세미나 열어

퀸즈장로교회가 지난 20일 주일 오후 6시 줌상으로 메타버스 세미나를 열었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교회"(고전1: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창조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날 세상세계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위치에 이르러 한다"며 "타락한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기도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셋을 통해 이어져온 하나님의 문화에 대적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메타버스 뒤에 숨겨진 사탄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메타버스 관련 영상 상영 후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은 "킹덤버스(Kingdomverse)"임을 강조하며 "메타버스는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할 뿐 아니라 창조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현실도피, 현실외면을 조장한다 △역사로부터 도피, 역사 의식(근원, 뿌리)이 없다 △권위(하나님)로부터의 도피를 조장한다 △질서, 윤리, 목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교회(로컬

약(Confession & Covenant)이 발표했다. 이 문서의 지향점은 '첫째, 성령의 과거적 역사를 넘은 현재적 카리스마 체험을 지향하며 둘째, 성서에 나타난 다양한 카리스마의 역사를 인정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지향하며 셋째, 성서에 근거한 건강한 영성을 지향하며 넷째,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서로 돕는 상상 목회를 지향한다'로 이 모임이 성령운동임을 나타냈다.

모임은 24일 폐회예배(설교 김낙인 목사)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처치)는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국 목사는 교회와 세상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①분리 ②동일시 ③변혁적(성육신) 등 3개 모델을 설명하며, "르네상스 이후 이 시대가 역사의 최대 타임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성육신 하신 주님이 변혁시키신 영역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은 장동선 뇌과학자의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와 미션라이프가 제작한 '메타버스와 교회', '메타버스와 다음세대(목사배워 제작) 등을 보며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세미나 마지막에 "다음세대는?"이라는 주제에서 최원일 장로(교육부장)는 "이미 메타버스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킹덤버스로 돌아오게 할 변혁적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학부모들과 협업을 강조하고 교회와 교사, 부모가 함께 영적 능력과 기술적 대안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 제45회 정기지방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김동권 목사 등 임원선출

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 제45회 정기지방회

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 제45회 정기 지방회가 2월 14일 아름다운교회(담임 장승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임원을 개설했으며 신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동권 목사(뉴저지 새사람교회) △부회장 장승기 목사(아름다운교회), 박광훈 장로(뉴욕성결교회) △서기 김주동 목사(갈보리성결교회) △부서기 정민영 목사(행복한우리교회) △회계 김경수 목사(뉴저지 성결교회) △부회계 윤기석 장

로(열방교회).

신임 회장 김동권 목사는 "회기 동안에 모든 대의원들이 행복한 목회가 되도록 작고 사소한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지방회는 이날 2023년에 지방회 차원에서 성지순례를 하기로 결의했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

도 이광모 장로, 봉헌특송 12회기 임원들, 합심통성기도, 이 취임식에서 수여하지 못했던 감사패와 위촉장 수여, 회장 인사 황규복 장로, 광고 송정훈 장로, 축도 임병남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병남 목사는 "무엇이 나의 기준인가?"(막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기 싫다"며, "장로들의 신앙생활과 삶 그리고 장로연합회 활동에 주님 외의 기준이 없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심통성기도는 △조국이 대통령선거를 통해 회복되기 위해/정권신 장로 △뉴욕평화교회와 임병남 목사의 목회를 위해/박용기 장로 △12회기 장로연합회와 임원들을 위해/정덕상 장로가 각각 기도했다.

한편 뉴욕장로연합회는 올해는 뉴욕평화교회에서 계속 기도회를 개최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12회기 첫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장로대학, 선교대회 등 일정 발표

뉴욕장로연합회 12회기 첫 조찬기도회

뉴욕한인장로연합회가 2월 17일 오전 8시30분 뉴욕평화교회(임병남 목사)에서 76차 조찬기도회를 열고 12회기(회장 황규복 장로) 사업일정을 발표했다.

회장 황규복 장로는 인사와 함께 12회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다민족선교대회: 10월 16일(주일) 오후 4시, 뉴욕센터교회, 강사 김재원 목사 △장로

대학: 9월 8일부터 10주간 1학기 진행 △영상 유언 작업: 4월 25일, GoodTV뉴욕 협력 탁구대회: 6월 11일 장로 권사 부부 및 목사 장로 복식경기 △목사들에게 감사하는 시간: 10월 9일, 미국교회와 함께 △단풍여행: 11월 5일.

예배는 이계훈 장로 인도로 찬양인도 이주수 장로, 기도 김요한 장로, 성경봉독 최원호 장로, 설교 임병남 목사, 헌금기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섬기는 목사회로”

OC목사회 제 44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목사회는 제44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20일 오후 4시 남가주프리미엄교회(담임 황여호수아 목사)에서 열었다.

신임회장 박용일 목사는 “코로나기간 중 가장 피해가 갔던 곳이 교회였다. 팬데믹은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한다. 목사회가 해야 할일은 첫째,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 속에 해결책이 있다. 둘째, 기도하는 목사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섬기는 목사회가 되어야 한다. 먼저 목회자를 섬기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목사(분회 총무) 찬



OC목사회 제 44대 이취임 감사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인도와 박정기 목사(서기)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순태정 목사(OC목사회 증경회장)가 기도했으며 박재만 목사(OC교회 협 부회장)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찬양사역자 이수정 집사(캠코랄 지휘자)가 특별 찬양했

으며 신원규 목사(좋은마을교회 담임)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왕상19:9-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원규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완성은 고난을 통해서”라며 “목회자의 고난은 사역의 열매”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목사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외치기 위해서”라며 “목회 여정 속 고난은 하나님이나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신에 대한 증

거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날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사회 회원들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근수 목사가 이임사를 했으며 공로증서 수여, 박용일 목사가 취임사를 하고 새 임원단을 소개했다.

이날 예배는 정도량 목사(OC 원로목사회장) 축도로 마쳤다.

2022년 OC목사회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용일 목사 △부회장: 이용훈 목사, 주성철 목사, 최정자 목사 △서기: 신인철 목사 △총무: 이원석 목사 △자문위원장: 김영찬 목사 △자문위원: 정도량 목사, 추원호 목사, 최승구 목사, 조영재 목사, 백태현 목사, 박상목 목사, 엄영민 목사, 문현봉 목사, 박대근 목사, 순태정 목사, 신성은 목사, 김영찬 목사, 곽재필 목사, 김익현 목사, 남상국 목사, 김근수 목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제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4월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담임목회자 및 캠프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 강사는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 담임, 국제제자훈련원 원장)과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미주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사)이며 등록비는 조기등록(3월 15일까지)은 420달러, 일반등록은 475달러.

▲문의: (714)635-3000

관계의 기술 세미나 및 회복집회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가 서울 은누리교회 총괄목사이자 지난 20여년간 회복사역본부부를 이끌어온 이기원 목사를 초청해 2월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관계의 기술’ 세미나 및 회복집회를 갖는다. 이번 집회는 금요일성령집회(2/25)와 주일예배(2/27)는 위로와 치유가 있는 ‘회복집회’로 토요일(2/26)은 오후 1시부터 세미나가 진행된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1강)친밀한 관계맺기 2강)예측과 영적인 관계 3강)관계회로 열기 4강)관계의 기술에 대한 이기원 목사의 강의와 조장원 목사(워싱턴 예수나무교회)의 특강이 전해진다.

▲문의: (682)597-5543 노정배 목사

담임목사 취임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송경원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2월 26일(주일) 오전 11시에 거행된다.

▲문의: (253)535-5803

효사랑 시니어대학

효사랑 시니어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일은 3월 1일(화) 오전 9시이며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번학기 프로그램은 △성경과노라 마 △건강체조&힐링댄스 △캘리그래피 △음악교실 △하모니카 △두뇌훈련 아트 △난타교실 △스마트폰 △클레이 아트 등이다. 등록비는 월 50달러(점심식사 포함).

▲문의: (714)670-8004, (562)833-5520

테너 박인수와 음악친구들 연주회

테너 박인수와 음악친구들 연주회가 2월 27일(주일) 저녁 6시 온마음교회(Hollywood Lutheran Church, 김중환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미경, 이지은, 최은향, 메조 소프라노 김영순, 원순일, 조지영, 테너 오위영, 백동휘, 바리톤 장상근, 조준석, 피아노 김주영 등이 출연한다. 온마음교회 주소는 1733 N. New Hampshire Ave. LA CA 90027이며 입장티켓 비는 30달러다.

▲문의: (818)378-8266



반석한인침례교회선교집회에서 김용재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크로노스로 카이로스에 이르기’

반석한인침례교회 선교집회, 강사 김용재 선교사

루이지애나에 있는 반석한인침례교회(담임 이용구 목사) 선교집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김용재 선교사(스페인)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용구 목사 사회로 시작된 20일 11시 예배는 강상영 집사가 기도했으며 오카리나 특주가 있었다. 이날 김용재 선교사가 ‘크로노스로 카이로스에 이르기(신 22: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용재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음성을 듣는 것은 직접 듣는 것이고 그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고 세번째는 관계와 상황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이라 말했다.

김 선교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이 크로노스로 가는 길”이라며 “매일 정해진 장소를 찾아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를 갖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

고 순종함으로 삶속에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세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일 수 있고 가장 영적인 것을 세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며 “선교는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것이다. 매일매일 삶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소명이다. 요즘 같은 글로벌 소사이어티에는 선교의 대상이 우리 곁에 와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공동체 내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사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 성령충만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성령충만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며 “성령충만한 삶을 살면 루이지애나 작은 도시에 놀라운 일을 예수님 오시기전 이루어내실 것”이라 말했다.

이날 예배는 이용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달라스연합감리교회 신년복음세미나에서 조영진 감독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에 가슴이 뚫린다”

달라스연합감리교회 신년복음세미나, 강사 조영진 감독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신년복음세미나가 ‘생명의 복음(요3:16)’이라는 주제로 14일부터 17까지 조영진 감독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이성철 목사 사회로 열린 첫날 세미나는 조영진 감독이 ‘이처럼 사랑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조영진 감독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하지 않고 이미 계시다 라는 전제위에 증명하고 있다”라며 “인생을 살면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된다면 우리인생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질문과 도전을 통

해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질 수 있다”라며 “교회 2000년 역사는 교회에 대한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왔다.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도전과 질문들은 주님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씨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값진 인생 뜻있는 인생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적 믿음이 가

슴으로 와서 감사가 샘솟게 되기를 바란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고난이 면제된 자들이 아닌 고난을 경험했던 자다. 따라서 역경을 통과하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깨닫게 된다. 고난 속에는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

한다는 믿음을 붙들면 고통 속을 헤쳐 나가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진 감독은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고 생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6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452-1111 / www.nscbc.com 170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714)481-2779 / facebook.com/f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아다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9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45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d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7:00, 5:45(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7: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lla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6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스사역원</h3>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전파선교회(복음선교회) 상임서목: (월-금)오전 10:00(목-토)오전 9:45(본당) 사역대상: 1. 영성사역 2. 교회 평신도 여성성도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3)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강화: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p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3>좋은마을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저녁 8:00 목요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29, www.socialsamsun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n.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 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하늘소망교회</h3>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전 9:30 오전 9:30 오전 7:00 Tel: (213)500-2948, dckc.kim@cbc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한교총-한기총 통합위한 기본합의서 서명

원론적 원칙 확인...회원권, 이단문제 등 세부사항 논의 필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한교총)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한기총)가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18일 서울 통합추진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만나 '상호존중' '공동리더십' '한국교회 플랫폼 역할 담당' 등 3대 기본원칙에 뜻을 모았다. 이는 원론적인 합의일 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양 측은 추후 회원권, 법인, 사업, 재정, 사무소와 직원 운용 등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 통추위는 통합된 기관의 회원 자격은 교단 중심으로 하되 선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현 한교총의 지도체제 방식인 '1인 대표와 집

단 협의체'를 이어간다. 또 기관의 역할로는 '한국교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문제에 대한 대치'를 우선으로 하고 회원 교단의 신학과 신앙에 따른 신학교육 및 목회자 양성, 교육과 봉사, 선교적 역량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을 내세웠다.

김현성 한기총 임시대대표회장은 "그동안은 통합하자는 말만 있었지 어떤 연합기관을 만들어가자는 구체적인 안이 없었다. 이번 합의서를 통해 통합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세부 사항을 놓고 디지인할 일반 남았다. 우리는 한교총에 일괄 타결이 아닌 점진별 논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단 시비가 있는 한기총의 회원 교단 문제에 대

해서는 "곧 회원권 논의를 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양 기관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기총 내 이단 문제다. 류영모 한교총 대표회장은 "이번 합의서 서명은 한국교회 가 하나 되고 연합해야 한다는 대의적 명분 아래에서 큰 틀에 해당하는 기본 사항을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단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를 포함한 여러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2018년 4월과 5월에도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소강식 한교총 총추위원장은 "아직 합의서가 상제하지 않고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통합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정치개입설 · 차금법 · 사학법...

기공협 제안 10대 기독교 정책토론 여야날선 공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 발표 및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 목사, 이재익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강민석 선임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각 정당에 제안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기공협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 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회재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이재익 서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공협이 제안한 기독교 관련 정책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정치권에 불거진 신천지의 개입설을 비롯한 포괄적 차금금지법(차금법)과 사립학교법 일

부개정안(사학법) 등의 주제로 논쟁을 벌였다.

기공협이 제안한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받는 신천지를 상대로 강제수사할 경우 사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검찰 시스템상 이는 명백한 수사 제재다. 윤 후보는 신천지와와 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종교특보단장을 맡은 이재익 의원은 "윤 후보는 당시 신천지에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범주 과학사) 전문가를 투입해 방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암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하게 신천지 과천본부 서버를 포렌식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반박했다.

차금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국민적 합의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차금법을 찬성하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차금법을 찬성하는 것처럼 말

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이후로의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종교 사학의 건학이념·정체성과 관련된 사학법을 두고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며 "사립학교의 인사가 사실상 침해되고 있다. 사학의 가치를 부정하고 자율성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교 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예외 인정을 폭넓게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강석 목사는 인사말에서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라며, 창의적 포지티브(긍정)의 정책 선거가 됐으면 한다"며 "공명정대한 클린(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여야 대선후보와 선대위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독의 페르소나(persona)가 된 배우를 성경과 설교자에 빗대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작품 안에서 감독이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와 의도가 배우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설교자의 언어를 통해 성령의 의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대구법, 아이러니 등의 도구를 활용해 설교에 극화된 연출을 더한 것처럼 설교에 생생함을 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욱 아신대 교수는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실제적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강단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 중 하나는 성경 구절을 놓고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 설교하는 것"이라며 "3대지를 선택할 게 아니라 '원포인트'를 정하고 성경 내용을 드라마처럼 펼쳐 보이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나' '나'가 주어 아닌 '하나님'을 주어로 설교 문장을 구성하는 '가 메시지 기법', 자기를 낮춰 청중과 눈높이를 맞추는 '자기동일시 기법' 등을 소개했다.

포럼 현장에는 백신 점종 안료자 가운데 사전 등록을 신청한 목회자와 예비 목회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포럼 실황은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와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김덕현 칼빈대 교수는 영화감

개신교인 정치적 성향은 보수보단 '중도'

기사연,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1000명 대상 6개 분야 인식조사

개신교인들은 보수적이라는 기존 인식과는 달리 대체로 중도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위원장 김영주 목사)이 지난달 설문조사 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 개신교인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47.3%)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39.8%) 조사 때보다 7.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인식 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생태·환경 통일 신앙 등 6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4%로 최근 3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보수는 22.3%로 전년도 28.8%보다 6.5%포인트 감소했다. 기사연은 줄어든 보수층이 중도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72.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 답한 응답률은 10.5%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종전 선언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53.2%, 21.3%로 나타나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실험에도 남북 간 평화 체제 구축을 바라는 개신교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43.3%가 반대인 데 비해, 34.7%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기본소득제 도입과 취약 계층 복지 확대 중 무엇을 먼저 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5.6%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를 택했다. 보편 복지보다 선별 복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주택 공급 대책으

로는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임대 공공 주택 확대가 43.6%, 공공 부문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가 22.4% 순으로 나타났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38.9%, 반대 35.6%의 응답률을 보여 찬성이 약간 높았다. 찬성 비율은 가구 자산과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46.6%와 35.3%가 각각 찬반 의견을 밝혔으며 18.1%는 중립이라고 답했다. 모병제 전환에는 찬성이 45.0%, 반대 26.7%로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영주 원장은 "이번 조사로 한국 개신교인들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를 이념의 잣대보다 실용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개신교인들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종전을 바라는 등 전향적 시각을 지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탈북민 담임목사 45% “사례비가 뭔가요”

정재영 교수 ‘...북한선교’ 세미나서 실태조사 발표

탈북민 출신 담임 목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사례비를 거의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교역자를 포함한 탈북민 목회자 절반 가까이 5년 이내에 소속 교회가 존폐 기로에 설 수도 있음을 우려했으며, 3명 중 1명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목회를 준비하던 시기부터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북한선교연구소(이사장 최태협 목사)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탈북민 목회자와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탈북 목회자의 현실과 북한 선교의 과제'라는 제목이 붙은 이 조사는 지난해 9~11월 탈북민 목회자 5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 규모는 작으나 국내 탈북민 목회자가 2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신뢰할 만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 교회가 마주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교회 출석 인원은 코로나19가 퍼지기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명 이하' 혹은 '31~50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36.6%, 26.8%나 됐다. 150명 이상이라 답한 경우는 전체의 17.1%였다.

하지만 이런 비율은 탈북민 목회자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교회들까지 아우를 수치다. 탈북민 목회자가 담임 목회를 하는 곳은 전부 150명 이하의 소형 교회였다. 이들 교회의 연간 재정을 살펴보면 10곳 중 6곳이 미자립 교회 기준인 3000만원에 미달했다. 지난해 결산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었다고 답한 곳은 31.8%, '1000만~3000만원 미만'이었던 곳은 27.3%였다.

사례비의 경우 '거의 못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29.3%였다. 하지만 부교역자를 제외한 담임 목회자만 한정했을 때는 그 비율이 거의 절반인 45.5%에 달했다. 탈북민 목회자 전체의 월평균 사례비는 69만9000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해 중위 소득이 182만원(1인 가구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앞으로 몇 년이 교회 유지에 고비가 될 것인지 물었을 때는 45.4%가 '5년 이내'라고 답했고 '예측하기 힘들다'는 답변도 31.8%나 됐다.

8개 국어로 선교연구 공유한다

전세계 선교학 플랫폼 '암리커넥트' 17일 출범 행사

전세계 선교학 교육기관과 선교학 연구자들이 하나로 연결된다.

국제암스(IAMS·세계선교신학회) 한국협력단체 한국암스펠로쉽(이사장 조재호)은 17일 선교학을 교육하는 신학교와 선교학자들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 '암리커넥트(amrconnect.net)'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선교학자들은 이날 오후 9시 이를 기념하는 온라인 모임을 갖는다. 이 플랫폼은 선교학 연구자와 기관 연합기관을 위한 것이다.

이 플랫폼에는 선교학 연구 자료 등이 공유된다. 선교학 연구자들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8개의 언어로 자기 연구 업적을 올릴 수 있고 연구 주제에 따라 협동 연구를 할 수도 있다. 암리 커넥트는 선교학자 15명이 2018년 2월 영국 옥스포드 선교학 센터에서 암리(AMRI·Alliance of Mission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결성을 위한 발족 모임을 하면서 시작했다.

암리는 전세계적 선교 연구 자료 공유를 위해 이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다. 박보경 장신대 교수는 "그동안 선교학계는 영어권인 구미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암리커넥트 출범으로

선교단체, 인천 정착 아프간인들에 선물

아프간 특별기여자 16기구 특별한 첫 나들이

지난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같은 해 8월 우리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이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충북 진천과 전남 여수의 임시 생활시설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 78기구 총 389명은 지난 10일 일차리가 있는 울산, 인천, 경기 남양주 등으로 흩어졌다.

S씨(42) 가족은 최근 15가정과 함께 인천에 정착했다. 아내, 자녀 셋과 함께 한국에 온 그는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18년간 일했다. 인천에 정착한 이들 가족들이 지난 18일 첫 나들이에 나섰다. 남성들은 직장에 간 탓에 여성과 아이들만 참여했다. S씨는 무릎에 문제가 생겨 직장에 나가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 학자들의 연구도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다"며 "선교학계에 지각 변동"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암스펠로쉽 대표로서 플랫폼 론칭을 위해 암리와 협력해왔다.

지 못해 외출에 동행했다. 이날 나들이를 주선한 자는 과거 아프간 청소년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이성제(54) 감독이다. 이 감독은 진천에서부터 합숙하며 아프간 사람들의 정착을 도왔다. 그는 외교부에 이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역자로 활동했고, 법무부가 마련한 아프간 자녀 대상 축구 교육도 담당했다. 매일 오후 2시간씩 축구를 가르치고 밤이면 아프간 가족들의 고민도 상담했다. 아프간 사람들은 그를 '코치 리라' 불렀다. 이 감독은 "한국교회와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줬다"며 지난 5개월의 임시 생활시설 뒷이야기를 전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4)

-선교지와 사역의 선택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받게 되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졌고, 나는 태국과 태국 선교 역사, 전략 등에 관해서 배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파송 받은 다음 네 살짜리와 한 살짜리 두 아들을 데리고 시카고 공항을 떠날 때 우리는 어서 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꿈꾸며 아무런 주저 없이 떠날 수 있었다.

미주한인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던 때인지라 선교비를 모금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고 불신가정에서 자란 나와 아내는 가족들의 지원마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게 된 것이다. 선교단체에서는 한국교회와의 연관을 가지기 위해서 한국에 6개월을 머물며 하기 선교대학원을 돕고 가도록 하였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간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기선교대학원의 수업기

았다. 목사가 될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의 길을 하나님은 너의 모든 꿈을 접어두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보지 않겠는가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목회학석사를 마치고 선교와 전도학으로 신학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던 나에게 아시아 선교 협의회 (Asia Missions Association)에서 제4차 선교대회를 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시카고에서 신학생으로 모든 것을 가리며 수학하던 나에게 캘리포니아에 가서 방학동안 돕는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으나 선교를 위해 일해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조동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무실은 랄프 윈터 박사가 설립한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다.

1986년 파사데나 대회장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선교

Mission, 이하 KIM)를 선교단체로 선택하게된 것이다.

한국선교단체 선택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서구권선교를 확장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다. 서구교회가 선교를 해온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나 이제는 비서구권교회들이 선교를 감당해야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이는 선교대회에서 간증을 한 에즈베리 신학교의 시맨드 박사와 역사의 흐름을 정리해준 랄프윈터 박사의 강의였다. 눈물을 흘리며 인도선교사 자녀로 태어나 인도선교사로 살아온 시맨드 박사가 인도사람들을 향해 "미안합니다. 나는 인도사람이 나와 같은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아니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선교는 우리 백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아교회에서 해야 되는 때입니다"라는 간증이였다.

그리고 선교역사를 통해 명확하게 이제는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모든 족속에게 나가 선교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윈터 박사의 강의는 나를 향한 신 하나님의 부르침처럼 들렸다.

둘째는 한국교회와 마지막 시대에 선교를 감당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선교단체가 잘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교회선교의 국제화를 위해 나와 같이 미리 미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였다. 선교사의 입문도 되지 않은 나에게 주어진 막연한 사명감은 나로 하여금 선교단체의 선택을 인도한 것이다.

내가 만나본 한국선교사님들은 초창기 파송된 선교사들로서 참으로 헌신된 좋은 분들이였다. 그러나 한결 같이 하는 말은 한국선교가 너무나 뒤떨어져있다. 우리가 서양선교로부터 많이 배워야한다. 서양단체들이 부럽다는 간접적인 표현들이 많았다. 심지어 어떤 선교사는 나에게 절대 한국선교단체를 통해 나오지 말라는 말까지 하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국선교단체를 통해 파송을 받아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dr.yongcho@gmail.com

선교지 선택

선교지의 선택은 감정과 이성과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날 때에 선교지 선택이 어려울 때가 많다. 선교지를 미리 정하고 들어온 선교사 후보생을 만나서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지 물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교지로 가라고 하셨다'는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국 두 나라를 1984년 단기선교로 사전에 방문하였다. 당시 미주한인교회는 단기선교를 보내지 않았던 때였다. 나는 당시 태국에서 안식년으로 시카고 트리니티신학교에 오신 김정웅 선교사의 도움으로 필리핀과 태국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연락하여 두 나라를 정하게 된 것이다. 이 때 두 나라를 두 달 동안 방문한 것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지 확인하고자함이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느끼고 살아야 하는 선교사의 삶 임마누엘 감격으로 선교지 선택, 사역의 열매와 도전 이겨내

많다. 한 선교사 후보생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에 적합한 선교지가 아니었지만 끝까지 그 선교지를 가겠다는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다. 첫 번째 임기인 4년이 지나기 전에 그 선교사는 선교지를 떠나겠다고 하였다. 그 때에 만나서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지 물었을 때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선교지가 여기가 아니라고 하신다는 말을 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많은 경우 이성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선교단체의 안내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을 통한 선택

선교지 선택에 환경을 통한 인도하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필리핀과 태

들에게 너무나 적은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두 나라 가운데 필리핀은 이미 카톨릭국가이며 태국이 선교사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신학교로 돌아와 선교지를 태국으로 정하고 준비를 하였다.

3년 동안 신학교 목회학석사를 마치고, 선교학으로 신학석사를 마치며 준비를 하였고, 선교단체를 정하였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꿈에 태국사람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태국사람이 무슨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나는 태국말을 하지 못합니다"라며 태국어로 말을 했다. 그랬더니 태국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깨어났다. 일어나 나에게 말하는 것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마케도니아인이 바울을 부르는 환상처럼 생각해서 태국으로 사역지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준비하고 선교단체를 선택하고 태국으로 파송을

간동안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결국 태국에서 사역하던 우리 단체의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회를 탈퇴하는 일이 일어났다. 나에게 한국 선교단체를 선택하도록 돕던 선배선교사들의 탈퇴는 나와 아내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하였다. 확신에 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떠났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왜 이처럼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 가운데 하루하루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제4차 아시아선교대회

선교사에게 선교단체를 선택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 같은 중대한 결정이다. 나는 왜 내가 하필 한국선교단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1987년 5월 14일 파송을 받았으니 미국으로 이민의 길을 떠난 지 9년 만에 한국 목사안수를 받았고, 그 후 한 달 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

대회는 1973년부터 시작된 아시아교회들의 선교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동진 목사와 랄프윈터 박사의 멋진 합작품이었다. 또한 미국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있던 나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역사였다. 선교대회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나에게게는 비서구권 선교운동 (Non-Western Missions Movement)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처음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나도 미국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미국선교단체를 통하여 파송을 받고 서양선교사들 가운데 끼어있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했었다.

선교대회를 섬기기 위해 학교를 한 학기 휴학을 할 만큼 나는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일년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다 한국선교단체인 국제선교협력기구(Korea International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6강 /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세레, 구름기둥과 불기둥(출5-15장)(하)

홍해 세레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쉽고 빠르게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출애굽 전쟁을 치르시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출애굽 전쟁과 홍해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상징인 애굽은 심판하시고(출14:25-28)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출14:29)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이기물 심판 때와 소돔 성의 심판 때 보이셨고 앞으로도 반복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리실 것입니다(출14:4,18).

둘째, 출애굽도 홍해를 건넌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스

라엘 자손들의 자적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권능임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홍해 앞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 '부르짖음', '원망' 밖에는 없었지만(출14:10-12) 하나님은 모세에

게도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렘2:4)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출14:13,14).

셋째,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을 죽이시고(출14:22)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출14:29) 의식을 주시는 것입니다(고후5:17/갈2:20).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로 말합니다(고전

10:2). 그러나 이것은 그저 의식일 뿐이며 후에 믿음 안에 서 죄인의 신분이 죽어지는 성령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속하여(고전10:2) 홍해를 건넌으로 세례를 받았듯이 우

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과 새 마음을 주셔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마실 것입니다 (렘 32:37-42/겔 36:26-28).

구원의 찬양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출14:31). 처음 모세를 통한 구원 계획을 들었을 때 하던 경배(출4:31)와 출애굽 전쟁을 목격하고 한 경배(출

12:27)와 지금은 또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출15:13)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시는 그 처소는 '성막'과 '성전'을 거쳐(왕상8:13,21) '예수

그리스도'로 갈 것입니다(요15장).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달이 지나면(출16:1,2) 먹을 것 때문에 아니라 그 전부터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로 바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쟁과 홍해 사건은 구원의 여정에서 완성이 아닌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낮에는 여호와와 구원을 위한 '성숙의 과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up and down을 더 심하게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

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말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출애굽과 동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은 낮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불기둥은 밤의 추위를 막아준 보호의 기능보다는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광

야여정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출33:7-11/민12:5, 16:42/신31:15/잠과 출16:10, 19:9, 34:5/레16:2)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출40:36-38/민9:18-23, 10:11,12, 14:14/느9:19).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고(출13:22)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에는 여호와와 구원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서 보며 따랐습니다(출40:38).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렀고(민9:18)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민9:22). 그러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애굽 전쟁을 치르시며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그 여정, 이제 본격적인 광야 그 삶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나라 백성의 지혜(눅20:19-24)찬34장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25). 눈가림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의 산제물로서 드림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롬 12:2). 둘째,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힘써야 합니다(19). 자신의 희생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 착한 행실을 나타냄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함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0:31). 셋째, 마귀의 교묘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20). 그 나라 왕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사신 것처럼 온갖 마귀세계가 교묘히 물려올 때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지혜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기도록 모든 능력을 준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계계를 이깁시다.

화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눅20:25-26)찬425장

주님의 말을 책잡으려는 한 질문에 주님이 보 이신 진리의 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첫째,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를 알 때 생깁니다(25)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나라는 모든 것을 다 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는 나라와 달리 하나님나라의 특징인 의와 영광과 희락은 성령이 일하심으로 임합니다(롬14:17). 둘째, 그 나라의 왕을 바로 알 때 생깁니다(26). 세상 나라들

보다 더 크신 하나님나라의 왕을 알 때 바른 분별 령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을 바로 알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기와 세상을 바로 아는 눈을 갖게 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지금도 우리 속에 약속됐습 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 만하기 때문입니다(골2:3). 성령의 지혜로 충만 한 자로 살아갑시다.

수 근본을 아신 주님(눅20:27-35)찬43장

전체를 알 때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듯이 구속 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 주님만이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아십니다. 모세의 율법근본을 아신 주님은 내세생활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가정제도가 완성됩니다 (34-35). 남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제도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실체인 하나님나라가 완성 될 때 완전한 참 가족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된 자료서의 희락이 계속됩니다. 둘째, 다시 죽

을 수도 없습니다(36). 그리스도의 첫부활에 참여한 신자는 그의 오심으로 살아나 죽음이 없는 세계를 영원히 살아갑니다. 셋째, 부활의 자녀로 살아갑니다(36). 첫째부활에 참여한 신자들은(계 20:5-6) 완성된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영원히 그를 즐기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산 소망 속에 살 아갑시다.

목 산 자의 하나님(눅21:36-40)찬338장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산 자로 일 하심을 본문에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36). 아브라 함 이삭 야곱을 산 자로 취급하심은 그들이 믿 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게는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사라집니다. 신자는 거듭난 이후 산자가 되는 것은 그 속에 새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37). 죽은 후 질서를 염려하는 세상에

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항상 살아계신 그 분을 상대하며 살기 때문에 복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되는 것은 산 자의 하나님이 진히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을 살아있는 자로 다루십니다(38). 장차 나 타날 세계는 불행자는 영벌을, 택자는 영생을 누리 게 됩니다(마25:34, 41). 살아계신 하나님 앞 에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금 다윗보다 먼저이신 주님(눅21:41-44)찬463장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다윗 의 주님 역시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시간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 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다윗 가문에 들어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42). 누구든지 다윗의 자손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 습니다. 둘째, 다윗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알았습 니다. 여기 주께서(성부) 내 주(성자)라고 부르신

것은 아버지의 아들의 대한 호칭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1200년전 구약인물이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43). 셋째,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 하게 하실 구속주이십니다(43). 모든 구속을 성취 하시고 완성자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편에 앉으셨 습니다(히1:3). 다윗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는 나의 주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토 외식자의 특징(45-47)찬276장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이 교회의 거침돌인 외 식자의 특징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사람들의 인기에 목을 맵니다(46). 산상 보훈의 교훈의 재료로 이용된 외식자의 특징, 역시 언제나 사람에게 보이려는 인본주의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둘째, 탐욕자입니다(47).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남은 재산을 자기 것으로 빼돌 리는 불의한 자들로 일만약의 뿌리인 돈을 사랑

하는 자입니다. 돈과 명예와 살인과 불신실의 죄 는 같이 움직입니다. 셋째, 경건을 이용하여 자 기를 과시합니다(47). 하나님까지 서슴없이 이 용하여 자기 욕심을 쟁기는 하나님의 원수로 활 동합니다. 바울은 이 욕의 활동으로 배를 하나님 으로 죄에 빠져 깊이 탄식했습니다(롬7:24, 빌 3:19).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선 의식을 가지고 신실할 때 우리는 외식을 이깁니다.



조희창 목사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대표간사)



문화읽기 “오징어 게임과 메타버스” (상)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총 94개국에서 1위에 올 랐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개한 비 영어권 시리즈 중 최초로 21일 연속 ‘오늘의 톱 10’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의 2억 9000만여 가구의 유료 멤버 중 1억1100만여 가구가 이 작품을 시청했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기록이기도 하고 정말 세계적인 열 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바라보며 우리 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이 작품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이렇게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두 번째 “이 작품 을 우리 크리스천은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내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게 된 요인은?

여기서 먼저 또 하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 다. “만약에 이 드라마가 10년전, 15년전에 나왔

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난한 이들은 더 욱 더 가난해지고 드라마속 456명처럼 생계 및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었고 부유한 이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더욱 부유해지고 있다.

이정재가 연기한 456번 기운을 비롯 게임 참가 자들의 삶은 그러한 현실을 드라마 속에서 너무



열풍의 원인 시대적 대중 공감으로 대중성 확보 공감 이유 빈부격차 문제, 게임 메타버스와 친밀

더라면 이만큼 인기를 얻었을까?”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것이다.

이 드라마는 코로나 팬데믹을 막 지나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진 체로 위드코로나 시대로 들어 서고 있고, BTS의 열풍은 더욱 뜨거워져가고 있 으며,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수상한 이후인 2021년 9월에 개봉했기에 현재의 인기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 시대의 대중에게 공감을 얻고, 대중성을 확보했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드라마는 철저하게 이 시대의 대중들이 공감하게 되는 그 지점을 제 대로 파고들고 있고 표현해내었다고 할 수 있 다. 이 작품의 감독인 황동혁 감독은 ‘도가니’(460 만)와 ‘수상한 그녀’(800만명 시청)의 흥행으로도 보여준 것처럼 대중들이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를 잘 꿰뚫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감독으로도 평 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통해 대중이 가장 공감 한 지점은 무엇일까?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456명과 오징어 게임을 참관하며 즐거운 VIP로 대표되는 가난한 이들 과 부유한 이들의 간격 즉 빈부격차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빈부격 차로 인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

나 잘 표현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속 세상으로 들어가서 게임에 지 면 잔인한 죽음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보다 더 잔인하고 더 비참해보이고 죽는 것보 다 못하다고 느끼기에 그들은 다시금 오징어 게 임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장면들에서 드라 마는 시청자에게 친한 질문을 던진다. “나라면 저 상황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게임으로 들어 갔을까? 안 갔을까? 게임을 멈추는 투표를 마주 했을 때 1등에게 주어지는 456억을 포기하고 게 임을 멈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게임을 계속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하나 오징어게임이 대중성을 확보한 요인 은 2021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게임과 메타버 스라는 DNA이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게임과 가상현실이라는 또 다른 세상 즉 메타버스 (metaverse)에 너무나 익숙하다. 메타버스는 요즘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실 제로 우리 생활 깊숙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확장가상세계 라고 번역해볼 수 있는데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 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내가 살아가 는 현실과 더불어 나의 가상의 캐릭터가 가상공 간 및 세상(메타버스)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 여러 활동들을 펼쳐가는 것이다.

(16면으로 계속)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6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I-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5. 졸업생은 목사안수 받고 목회 또는 선교사로 사역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 wdc@midwest.edu
Dallas Site : dallas@midwest.edu
Irvine Site : glica@midwest.edu
Torrence Site : music@midwest.edu

신교 펌지

인도

할렐루야! 환난, 핍박, 추위 속에서도 늘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안인사 드립니다. 인도 미전도종족 복음화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며 감사하며 새해 헌정선교 보고와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NCTS 신학교

New Creation Theological Seminary(NCTS)는 전 신학생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주 가르치고 배우고, 매달 이웃교회 전도로 복음을 선포하고 매달 전여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학생들의 눈부신 영적성장과 교회부흥으로 계속 성전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신학생들의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매달 한명의 제자 삼기, 1년에 12명을 목표로 합니다.

10차 미전도종족 복음화 이웃교회

새해부터는 전 신학생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학생에 한해서 이웃교회 전도 나갈수 있는 규율을 더 강하게 하였습니다.

△찬디가르 광역시의 Sohan 목사님과 15명의 신학생들이 54가정을 방문, 복음을 선포하고 양식, 주로 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238명이 청취하였고 그중에 118명이 영접하였다고 명단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

△마하라쉬트라 주의 Niketan 목사님과 신학생 8명이 슬럼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보고 개종한다고 신고하고 힌두강경파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으며 소리 지르며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웃교회팀은 조용히 방언기도만 계속하였고 저희 후방에서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의 리더가 이곳에서 당장 나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여 큰 봉변을 면하였습니다. 신학생들은 두려워하며 떨었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더니 30가정의 50명중에 20명이 영접하였다는 승리의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디샤주, 차티스가르주, 가지야바드, 마디아 프라데쉬주, 나갈랜드주, 히마찰 프라데쉬주, 우프라 프라데쉬주, 텔리, 웨스트벵갈주, 락크나우시, 안드라 프라데쉬주, 람쁘르지역 합 14곳에서 149명의 신학생들이 515가정을 방문, 1,580명이 복음을 듣고, 1,022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안드라 프라데쉬 성전건축: 라주 목사님께서 차세대 복음화를 위해 무료 방과후 학원을 개설하기위해 2층에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고, 블렌체드의 제이빨 목사님은 성전에 차고 넘쳐 2층 성전증축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차티스가르주의 야안 목사님 교회도 부흥하여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도님들의 헌물과 은혜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 힘에 부친다고 하는 기도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군데 교회 건축비(각 2백만원씩)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람쁘르 센터: 고아와 신학생 25여명이 상주하는 람쁘르 센터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초대하여 맛있는 치킨과 빵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고아 아이들 11명에게는 따뜻한 겨울옷 2벌과 운동화 1켤레씩을 하나님께서 선물해주셨습니다. 신학생들은 틈틈이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였는데 29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으며 78명이 영접하였습니다.

오직주 & 전하라 선교사 가정 올림 jung55353@naver.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48. 신자간 결혼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의 근본적인 발단은 가정에서 기인되었고 모든 가정문제의 해결은 온전한 가정선교의 정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가정선교를 위한 해결방안, 즉 모든 사회문제 모든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신자간의 결혼에 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신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견해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이 비뚤어지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인생의 첫 단추인 결혼을 잘 해야 가정의 근본문제 모든 사회적인 근본문제들을 예방, 차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최초 제정자, 주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참 그럴듯한 설득입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부모님들이나 집안 식구들이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러한 기독교 가정들이 저들의 말대로 되지 않고 급기야 부부간의 갈등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노리는 가정파괴의 무서운 작전인 것을 깨닫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간의 결혼이 아닌 경우를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불신자나 무신론자와의 결혼과 (2)타종교 신자와의 결혼인 경우입니다. 불신자나 무신론자의 결혼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타종교

자 간의 결혼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음(창24:3, 28:1, 신7:3, 수23: 12, 느13:25, 고후6:14-16)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가정선교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해결방안으로 "결혼은 반드시 신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간의 결혼만이 하나님의 뜻이며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승패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간 결혼은 가정파탄의 불씨를 안고 하는 것이며, 사탄, 마귀의 가정파괴공작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는 9가지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1. 하나님께서 불신자와의

신자간 결혼은 하나님의 뜻 온전한 가정선교의 첫 걸음

제정하신 결혼의 4대원리는 (1)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창 2:24, 마19:4-5)이며 (2)결혼의 상대, 배우자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 예비하셨다는 믿음(창24:43-44)이 필요하며 (3)결혼은 반드시 신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창24:4,고전7:39) (4)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마 19:6)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이 신자 간에 이루어져야 함은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혼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남자, 여자 신자 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 결혼과 이상적 가정을 이루는 승패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져 눈이 멀면 제 눈에 안경이라고 결혼성사를 위한 합리화와 설득작업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불신자라도 결혼을 전제로 전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을 가진 배우자 선택이라면 애시당초 가슴이 좀 아플지라도 깊은 관계에 이르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특성인 배타성 때문에 타종교의 잘못된 교리에 이미 세뇌된 것을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우고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배우자의 다른 종교에 끌려 들어가기가 쉽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연습이 아니며 한번 결정된 것을 살다가 서로 맞지 않다고 다시 물릴 수도 없는 단회적, 숙명적 사건입니다. 이 같이 평생을 함께 살 배우자의 선택은 일생을 통하여 행복과 불행을 가능하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결혼의 경우는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를 따라 신자 간에 결혼함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성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불신

결혼을 명확하게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말씀(창24:3,28:1, 신7:3, 수23:12, 느13:25, 고후6:14-16)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 두 사람의 인격이 하나가 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성적인 관계라기보다 영적인 친밀감과 인격의 조화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삶의 우선순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갈 5:19-21)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 영적인 생활에 많은 고통

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남편에게 복종', '아내를 사랑'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온전한 영적생활과 가정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고 큰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5. 가정을 작은 '지상천국'을 만들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가정은 마치 '지상의 천국'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의 결혼으로 둘로 나누어진 가정은 '지옥의 문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잘 연합된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선장으로 삼고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6. 가정의 구원 자녀양육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함께 교회를 가면서도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하물며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불신자라면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 양육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가정구원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7. 하나님이 없는 신뢰는 진밀감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의 부부관계라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인생관이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신뢰와 진밀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8. 모든 가정사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의 부부관계라면 종교관 인생관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서로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는 복잡한 가정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9. 자신의 결정에 대한 회개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왜 불신자와 결혼했으며 왜 말씀에 불순종했는가?"를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녀들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는데 실패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각오와 회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인/터/뷰

그리스신학교 학장 Dr. Freddy Cardoza

85년간 주 예수그리스도의 교회위해 사역자 준비 훈련

그리스대학교(Grace College 총장 존 티반 박사)는 85년 전인 1937년 인디애나 주 워노나레이크에 세워진 학교다. 칼빈의 개혁주의와 독일의 경건주의가 어우러진 신학노선을 갖고 있는 학교로 그리스신학교 한인동문은 현재 전 세계 26개 국가에서 250여명이 사역하고 있다.

최근 본교 신학교인 그리스신학교의 학장인 프레디 카르도자

-그리스신학교에 오기 전 라미라다에 위치한 바이올라 대학교와 탈봇신학교의 교수로 사역했던 경력이다. 특별히 LA를 포함한 남가주에서의 교수사역을 10년간 했다는 것과 현재 그리스신학교에서 다년간 사역을 하면서 미국의 서부와 중서부지역의 차이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바이올라대학교와 탈봇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겼었다. 현재 그리스신이 위치한 인디애나주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차이점은 지역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미국 중서부의 소도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중서부출신 학생들의 대부분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서부지역 학생들은 세계최대 영화산업의 도시에 근접해서 살기 때문인지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기에 가치관과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바이올라대학이 기독교대학이기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남가주지역의 신학생들은 대도시라는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삶은 중서부지역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에 미

래의 사역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신학교 교수들의 특징은?

다양한 지역적 배경과 글로벌한 학문적 경험을 가진 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그리스신학교의 메인 캠퍼스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 전 세계 글로벌한 경험을

가진 교수들로부터 특별히 학문적,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스대학교와 신학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남녀 사역자들을 교육시켜 전 세계에 걸쳐 변혁을 가져오는 목회사역에 헌신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 대학원과정에는 인문학석사(MA), 신학석사(M.Div), 목회학사(D.Min), 문화교류학박사학위(D. Ics)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저는 현재 그리스대학의 목회학부(1948년 설립) 학장으로, 그리고 그리스신학교의 학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또한 시니어 리더십 그룹에서 사역하고 있다.

-개교 85주년을 맞은 학교

박사(Dr. Freddy Cardoza)가 남가주를 방문했다. 프레디 박사는 신학교 학장으로 업무차 여행을 자주하는 편으로 마침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여러 행사가 있어서 오게 됐다며 무엇보다 본교 한국어 문화교류학 박사학위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시경 박사와 김정은 박사를 만나는 것도 이번 여행의 목적의 중요한 일정이라고 소개했다.

로서 소개할 점은?

그리스신학교는 금년에 85주년을 기념하게 된다. 개교 90년을 향해가는 대학의 학장으로 자부심은 80년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온 것이다. 또한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정확 무오한 교리, 말씀에 기반한 한 기독교 전통신앙을 지켜왔고 가르쳐왔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교회,

들을 수업시간에서 토의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론을 자신들의 학위논문에서 반영시킨다.

물론 여기에서 사회조사 방법론을 이용해 논문의 주제를 점검하고 성경의 원리에 비춰 평가하며 자신들의 사역에 적용하게 함으로서 사역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책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이렇게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간증을 저희 교수들은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

한국어 목회학박사학위(D.Min), 문화교류학박사학위(D.Ics) 개설
팬데믹시대 온라인교육으로...한인동문 26개국에서 250여명 사역

세계교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목회자, 선교사들을 양성해 왔다.

특히 한국목회자들을 위해 마련된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한국어 박사학위 프로그램은 목회학박사학위(D.Min)와 문화교류학박사학위(D.Ics)가 있다. D.Min은 목회사역에 헌신하는 한국인목회자와 교회 대표들을 위한 최상위 학위 프로그램이다.

D.Ics는 미국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타문화 사역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상위 학위 프로그램이다. 이 학위 프로그램은 전공분야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론들을 다루며 이런 이론들은 학위논문에서 반영하게 된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사역현장에서 경험한 제반 문제

-팬데믹 시기에 학교교육의 방향은?

Covid 19은 전 세계와 신학교육을 엄청나게 바꾸어놓았다. 우리가 이 코비드 팬데믹에 얼마나 미숙하게 대처했는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이 영향권 아래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선교단체 대표들은 매우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목회자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엄청날 것이다.

팬데믹 시대에 학교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다. 현재

로서 최선의 방법은 현 상황에 대한 최적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다행히 그리스신학교 같은 신학교육기관들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교회가 온라인예배를 실시한 것처럼 그리스신학교의 미국인 교수들이 새로운 커리큘럼을 이 팬데믹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 박시경 박사와 김정은 박사를 통해 한국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섬기도록 격려하고 있다.

두 분의 박사님은 온라인 강의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님들과 깊은 교류를 가지면서 학



프레디 카르도자 학장

대에 최적화된 ATS에서 승인 받은 온라인 박사과정프로그램이어서 그리스신학교 리더십들은 이 프로그램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동문들에게 할 말은?

유다서 3절의 말씀, '성도에 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드리고 싶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 또한 그리스 신학교도 저들 동문들이 26개 국가에서 사역할 때 늘 후방에서 지원하며 격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빈다.

프레디 카르도자 학장은 대학동창인 아내 크리스틴과 28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25세, 23세 된 두 아들이 있다. 카르도자 부부는 목회와 선교, 그리고 지도자 양성하는 사역에 대해 깊은 사명을 갖고 교수로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흑인기독교인들...

(14면에서 계속)

더군다나 1년반이 넘는 시간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익숙함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게임 매출액은 급증하고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혹은 집 안에 있는 수

많은 시간들을 게임에 쏟았다. 그리고 게임은 물론이고 여러 활동이 가상공간 및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금 전 세계의 어린이와 다음세대가 즐기고 있는 로블록스(Roblox)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제작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

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다. 로블록스에는 메타버스적인 페르다임의 게임이 다수 존재한다. 팬데믹 기간동안 많은 자녀들이 직접 대면하며 친구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로블록스의 게임세상, 즉 메타버스에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숨바꼭질 하기도 하고, 함께 집을 짓기도

하고 현실 못지 않게 친구들과의 놀이와 만남을 진행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는 현실과 오징어 게임 속 세상이 액자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현실과 오징어 게임 속 세상은 현실과 메타버스에서 만나 게임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 그런데 메타버

스 속 게임 같은 오징어게임 속 세상에서 실제 사람이 게임을 하고, 실제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속의 배경이나 화려한 색깔이 게임과 메타버스 속 세상과 닮아있다.

어느 새인가 우리 속에 DNA처럼 자리 잡아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임과

메타버스의 세상이 이 드라마를 더 쉽게 몰입해서 받아들이게 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오징어 게임에서 진행되는 그 게임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고 쉽고 단순하고 흥미진진하기까지 하다.

wooltarius@gmail.com

(다음 회에 계속)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쉽고 재미있는 어른이들의 성경이야기 순삭성경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좋은책 읽어주는 그리스타임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스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